

아제르바이잔

정보수정일자: 2011. 04. 12

작성처: 바쿠 KBC

본 자료를 무단으로 복제, 전재, 판매하는 행위는
저작권법에 의해 엄격하게 금지되며 위반 시에는
법률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됩니다.



<http://www.kotra.or.kr>

<http://www.globalwindow.org>

◀ 목 차 ▶

I. 국가일반

- 국가개요 / 1
- 정치사회동향 / 1
- 한국과의 주요이슈 / 2

II. 경제

- 경제동향 및 전망 / 3
- 지역무역협정 체결현황 / 5

III. 무역

- 1. 교역동향**
 - 수출입 동향 / 5
 - 한국과의 교역동향 및 특징 / 7
- 2. 무역관련 주요제도 및 절차**
 - 수입규제제도 / 9
 - 관세제도 / 9
 - 지적재산권 / 10
 - 통관운송 / 11

IV. 투자

1. 투자환경 및 동향

- 투자환경 / 12
- 외국기업 투자동향 / 15
- 우리기업 투자동향 / 16

2. 외국인투자 유치제도

- 주요 투자법 내용 / 17
- 진출형태별 절차 / 18
- 투자입지여건 / 22

3. 사업관리

- 노무관리 / 24
- 조세제도 / 26
- 외환관리 및 자금조달 / 27

V. Business 참고정보

- 물가정보 / 29
- 무역, 투자 진출 시 애로사항 / 30
- 진출 성공, 실패 사례 / 30
- 이주정착 가이드 / 31
- 출장가이드 / 32

KOTRA 99개 KBC에서 전하는 Global 정보 실시간 제공 서비스

KOTRA InfoPass 안내

'InfoPass'란? 정보(Information)와 자유이용(Pass)을 결합한 KOTRA 정보 자유이용 서비스로 KOTRA 국가정보의 온·오프라인 이용 뿐만 아니라 KOTRA 발간하는 모든 유·무료자료를 실시간 받아보실 수 있는 VIP 정보서비스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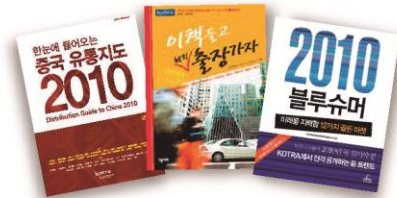
1. 국가정보 서비스 (전세계 136개국)

- KOTRA 주재 7개국 및 비주재 관할 65개국 국가정보의 이용 ID부여
 - * 비주재국 관할 65개국 국가정보 InfoPass 고객에게 최초공개
- 국가정보 (7개국) 전질 인쇄본 무료 제공 (150만원 상당)



2. KOTRA 발간 유·무료자료 무료 배송 서비스

- 서비스 이용기간내 발간하는 모든 KOTRA 자료 실시간 배송
 - * '09 유·무료 자료 (약 180여권) : [유료단행본] '2010 블루슈머', '중국유통지도' 등 21권 / [무료자료] '한-EU FTA 10대 수출유망상품' 등 163권



판매가격(VAT 포함)

대상

500만원/년
250만원/년대기업, 지자체, 연구소, 대학, 유관기관(협회 등)
개인 및 중소기업

*InfoPass ID는 기관내 공유 가능하나 동시접속은 불가 (ID추가시 20% 적용)

- ✓ 가입방법 : www.globalwindow.org 내 InfoPass 가입신청서 작성 후 팩스 또는 E-mail 송부
- ✓ 담당자 : KOTRA 구미팀 정은정, 김한나 대리
- ✓ Tel : 02)3460-7319, 7322 / Fax : 02)3460-7924
- ✓ E-mail : cocoej@kotra.or.kr (정은정)
hanna@kotra.or.kr (김한나)

kotra

1. 국가일반

1. 국가개요

가. 일반사항

국명	아제르바이잔(Republic of Azerbaijan)
면적	86,600km ² (대한민국의 약0.9배)
수도	바쿠(190만 명)
인구	약 897만 명
민족	아제르바이잔인(90.6%), 다게스탄인(2.2%), 러시아인(1.8%), 아르메니아인(1.5%), 기타 20여 개 소수민족(3.9%)
언어	아제르바이잔어(제 2외국어: 러시아어)
종교	이슬람교(93.4%), 러시아 정교(2.5%), 아르메니아 정교(2.3%), 기타(1.8%)
시차	서울시간: 4~5시간 느림.
화폐단위, 환율	Manat(마나트) 1달러=0.80마나트

나. 경제현황(2010년 주요 경제지표)

명목GDP	518억 달러
1인당GDP	약 5,755 달러
실질GDP 증가율	5.0%
소비자물가상승률	7.8%
외채	약 32.6억 달러
교역규모	수출: 262억 달러, 수입: 64억 달러
주요 교역품목	○ 수출 - 석유제품(94.1%), 식료품(2.8%), 금속제품(0.6%), 플라스틱(0.4%), 기타(2.1%) ○ 수입 - 기계장비(31.6%), 식료품(20.5%), 금속제품(15.3%), 운송수단(13.2%), 기타(19.4%)

자료: EIU Country Report 2011. 3월

2. 정치 사회 동향

- 일함 알리에프 대통령의 지도 하에 안정적인 정국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 2005년 11월 실시된 의회선거에서 집권여당(New Azerbaijan Party: NAP)이 전체 의석의 과반수가 넘는 63석을 확보함으로써 안정적인 정책을 펴나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다.
- 2008년 10월 15일 대통령 선거가 실시되었으며 일함 알리에프 대통령은 2기 집권에 성공하여 향후 5년간은 안정적인 정국이 유지될 전망이다.
 - 2009년 3월 18일 실시된 개헌을 위한 국민투표에서 대통령직 중임제한 조항 폐지안이 통과됨으로써 이론상 영구 집권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이 마련되었다.

- 하지만, 최근 이집트, 리비아 등에서 발원한 중동 및 북아프리카 지역의 민주화 물결이 아제르바이잔을 비롯한 CIS 장기독재집권 국가들에게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어 갑작스런 정국불안 발발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 아제르바이잔 대통령은 2011. 1월말 반 부패 정책을 강화하도록 하달하였고 2월 14일에 교통경찰 근무지침 개선 법령에 서명하였다. 이에 따르면, 교통법규 위반자는 현금이 아닌 은행 계좌로 벌금을 지불하여야 하며 징수된 벌금의 4분의 1은 교통경찰 급여로 지급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세관의 통관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Single window 통관 시스템이 구축될 전망이다. 이러한 반 부패 조치는 부패 관행을 없애려는 순수한 의도라기 보다는 중동 및 아프리카 소요사태의 전이를 의식한 정부 기득권세력의 ‘민심 달래기’로 해석하는 의견도 있다.
- 향후 석유산업 발전에 따른 오일 머니의 효율적 활용을 통한 비 에너지분야 발전과 산업 다변화, 국민 생활수준 향상(빈곤층 퇴치), 부패 척결 등의 성공 여부가 아제르바이잔 제 2 도약의 관건이 될 전망이다.

3. 한국과의 주요 이슈

외교 수립 및 대사관 개설

연도	주요 사항
1992.3.23	외교관계 수립
2006.03	주 아제르바이잔 한국대사관(1인공관) 개설(류광철 대사 대리)
2006.12	류광철 주아제르바이잔 특명전권대사 임명
2007.03	주한아제르바이잔대사관 개설(Rovshan Jamshidov 대사)
2009.11	제2대 이 지하 대사 부임

자료: 외교통상부

□ 주요인사 교류

- '05. 11: 맘마디아로프 외교장관 방한
- '06. 5: 노무현 대통령 아제르바이잔 공식방문
- '06. 6: 김용덕 건설교통부 차관 아제르바이잔 방문
- '06. 8: 이원걸 산업자원부 차관 아제르바이잔 방문
- '06. 10: 알리에프 산업에너지부 장관 방한
- '06. 11: 맘마도프 교통부 장관 방한
- '07. 4: 일함 알리에프 대통령 방한(6개 부처 장관 수행)
- '07. 5: 이춘희 건설교통부 차관 아제르바이잔 방문
- '07. 6: 헤이다로프 비상사태부 장관 방한
- '07. 8: 이재훈 산업자원부 차관 아제르바이잔 방문
- '07. 9: 아사도프 국회의장 방한
- '07. 9: 이원걸 한국전력공사 사장 아제르바이잔 방문
- '08. 4: 이재훈 지식경제부 차관 아제르바이잔 방문
- '08. 5: 한승수 국무총리 아제르바이잔 방문
- '10. 3: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 아제르바이잔 방문

- '10. 4: 이상득 국회의원 아제르바이잔 방문
- '11. 3: 국토해양위 송광호 위원장 등 국회의원 5명 아제르바이잔 방문

주요 협정·약정 체결현황

체결 협정	체결 약정
- 2006. 5월: 문화협정 - 2006.5월: 항공협정 - 2007.4월: 투자보장협정 - 2008.5월: 이중과세방지협정	2006년5월 노무현 전 대통령 아제르바이잔 방문, 2007년4월 일함 알리에프 대통령 방한 등을 계기로 경제 분야별 약 30여 개 협력 약정 체결

□ 아제르바이잔 거주 한인

아제르바이잔 거주 한인은 약 150여명이며, 주로 한국어 교사, 태권도 사범 등의 직업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2006.5월 노무현 대통령 방문 이후 우리 기업의 진출이 늘어남에 따라 기업 주재원이 증가하는 추세이다.

한편, KOICA의 대 아제르바이잔 무상원조사업(ODA)이 확대됨에 따라 동 원조사업 수행업체 또는 기관들의 진출이 보다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II. 경제

1. 경제동향 및 전망

아제르바이잔은 카스피해 유전 개발로 인한 오일 달러 유입으로 2007년에는 CIS 내 최고의 경제성장률인 25.0%를 기록하며 급성장 중이다. 2000년 이후 GDP 성장률이 줄곧 10%를 상회하였으나 2008년 하반기 세계 경기 하강에 따른 국제유가 급락으로 2007년을 정점으로 증가율 둔화세가 나타나고 있다.

2008년에도 꾸준한 석유/가스 생산 및 수출 증가에 따라 10.8%의 두 자리대 GDP 증가율을 유지하였으나 2009년에는 한 자리대(9.3%)로 증가 폭이 소폭 감소되었다.

오일 산업의 호황은 통신, 운송, 건설, 도소매 분야 spillover 효과를 낳고 있으며 다시 이러한 사회 인프라 개발이 전체적인 경제성장을 견인하고 있다. 하지만 높은 인플레이션, 인건비 인상 및 마나트화 통화절상은 非 오일 부문의 경쟁력 약화를 초래할 위험요소로 작용하고 있으며 실제로 제조업 비중은 꾸준한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아제르바이잔은 2009년 세계 경기 침체로 인한 국제유가 하락 및 원유 수요 감소로 인한 심한 경제적인 압박 속에서도 9.3%의 실질 GDP 증가세를 보여 상대적으로 양호한 경제기조를 유지하였다. 1999년 이래 지속되어온 두 자리 수의 고속 경제성장 추세는 비록 무너졌지만 2009년에 원유 및 가스 생산량을 11.0%나 늘리며 유가 하락의 충격을 완화시킬 수 있었다.

하지만 2010년에 실질 GDP 증가율은 5.0%에 그치며 점진적인 경제성장 둔화 추세를 보였다. 2010년 GDP 증가율 둔감폭 확대는 아제르바이잔 경제 성장의 추진동력인 원유

생산이 2009년 11% 증가에서 2010년에는 2.9% 증가로 대폭 둔화된 데에 원인이 있다. 2010년을 기점으로 아제르바이잔 경제는 경제를 움직이는 동력원의 변화가 감지되고 있다. 그 동안 경제 성장의 중심축으로 작용해 오던 에너지 부문은 2010년 들어 1.8% 성장에 그쳤으나 비에너지 부문은 7.9% 성장하며 중심축으로 부상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예년 대비 원유 생산이 앞으로도 계속 둔감 추세를 유지할 전망이어서 아제르바이잔 경제 성장도 지속적으로 둔화될 것으로 보인다. 2011년 실질 GDP 증가율은 3.6%에 머무를 것으로 예상된다.

원유, 가스 등 에너지 생산은 2005~2009년 대비 증가세가 비록 둔감 될 것이지만 아제르바이잔 경제의 근간을 지탱하는 힘으로 여전히 기여할 것이다. 2013년 하반기부터 Chirag 유전에서 본격적인 원유 생산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 2014년에 원유 생산은 다시 확대될 전망이며 2016~17년에 생산이 시작될 2단계 Shar Deniz 가스전이 여기에 한 몫을 더할 것이다.

아제르바이잔통계청에 따르면, 2011년 1월 실질 GDP 증가율은 전년 동기의 9.2% 증가 대비 0.8% 증가하였다. 이러한 급감 원인은 GDP의 63.2%를 차지하는 상품 생산이 2011년 1월에 2.7% 감소한 데에 있다. 산업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원유 및 가스 생산이 전년 동기 대비 각각 3.8%, 10.7% 감소하였기 때문이다. 아제르바이잔 정부는 2011년 원유 생산량은 51.5백만 톤으로 2010년 50.8백만 톤 대비 보다 확대될 것이라 전망하고 있다.

상품 생산과 달리, 서비스 생산은 2011년 1월에 7.2% 증가세를 보였다. 증가 폭이 가장 큰 부문은 숙박요식업 및 IT/통신업으로 각각 16.1%, 19.4% 확대되었다. 하지만 이 두 부문이 전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3.0%(숙박요식업 1.4%, IT/통신업 1.6%)에 불과하다.

경상수지 흑자는 유가 급락으로 2008년 164억불에서 2009년 미화 102억불로 떨어졌으나 원유 및 가스 생산 확대 및 가격 회복으로 2010년에는 153억불(약 GDP의 22%)로 회복되었다. 2011~15년 기간에도 경상수지 흑자 기조는 GDP의 약 25% 수준에서 변함없이 유지될 전망이다. 수출이 수입의 두 배 이상이 되어 무역 흑자가 지속적으로 발생할 것이기 때문이다. 2010년의 경우, 수출은 전년 대비 45.1% 증가한 미화 213억불, 수입은 7.8% 증가한 미화 66억불로 집계되었다. 2010년 무역수지 흑자는 147억불로 2009년 86억불 대비 급증하였다. 무역수지 흑자의 일등공신인 원유 수출은 전년 대비 47.2% 증가한 201억불로 전체 수출의 94%에 이른다. 서비스 수지의 경우, 2단계 Shah Deniz 가스전 개발에 따라 서비스 수지 적자는 2012년부터 줄곧 확대될 것으로 보이나 경상수지 흑자 기조는 변함없을 것이다.

환율의 경우, 2009~10년 국제 유가 하락에도 불구하고 마나트0.8 : 미화1의 안정적인 시세를 유지하였다. 이는 통화당국이 환율방어를 위해 보유 외환을 많이 사용했었을 것으로 판단되며 실제로 외환보유고는 2009년 7월에 14개월 최저치인 미화 49억불로 감소되었다. 이후 외환보유고는 강하게 회복되어 2010. 12월말 현재 미화 64억불로 확대되었다. 2011년에는 마나트0.79 : 미화1의 안정적인 환율이 유지될 것으로 전망되며 2012년부터 외국인직접투자(FDI) 확대, 지속적인 오일달러 유입으로 마나트화가 절상되어 마나트0.74 : 미화1의 환율이 예상된다.

아제르바이잔 중앙은행은 글로벌 금융 위기로 자국 금융시장 검색이 심화됨에 따라 여러 차례에 걸쳐 유동성을 확대하는 통화정책을 구사하였으며, 재할인율은 최초 15%에서 최종

2%까지 인하되었으며 시중 상업은행의 지급준비율은 최초 12%에서 최종 0.5%까지로 낮추어졌다. 이는 유가 하락에 따른 외화 유입 감소, 국제 금융시장에서 자금조달이 어려워지자 국내 금융 시장의 신용경색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였다. 최근 들어 인플레이션 압력 등을 의식한 아제르바이잔 중앙은행은 재할인율을 2011년 3월 1일부로 5%로 인상하고 지급준비율은 2%로 인상하였다.

2. 지역무역협정 체결현황

아제르바이잔은 구 소련 9 개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하였지만 실질적으로 발효는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체결 현황은 다음과 같다.

연번	FTA 체결국	체결일
1	러시아	1992. 09. 30
2	우크라이나	1995. 07. 28
3	그루지야	1996. 03. 08
4	투르크메니스탄	1996. 03. 18
5	우즈베키스탄	1996. 05. 27
6	카자흐스탄	1997. 06. 10
7	타지키스탄	1997. 08. 13
8	키르기즈스탄	2004. 01. 12
9	백러시아	2004. 03. 31

자료: 아제르바이잔 외무부

이 외에 아제르바이잔은 1999 년 EU 와 동반자적 협력관계구축 협약을 체결하였다. 동 협약은 아제르바이잔 법체계를 EU 법체계와 합치, 지적재산권, 투자자산, 사유재산 보호, 아제르바이잔을 최혜국(MFN: Most Favored Nation)으로 대우할 것 등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그 밖에 아제르바이잔은 EU, 일본, 미국으로부터 일반특혜관세(GSP: Generalized System of Preferences) 우대를 받고 있다. 아제르바이잔은 2011 년 하반기 WTO 가입을 목표로 가입 노력을 적극적으로 기울이고 있다.

III. 무역

1. 수출입동향

- 경상수지 흑자는 유가 급락으로 2008년 164억불에서 2009년 미화 102억불로 떨어졌으나 원유 및 가스 생산 확대 및 가격 회복으로 2010년에는 153억불(약 GDP의 22%)로 회복되었다.
- 2011~15년 기간에도 경상수지 흑자 기조는 GDP의 약 25% 수준에서 변함없이 유지될 전망이다. 수출이 수입의 두 배 이상이 되어 무역 흑자가 지속적으로 발생할 것이기 때문이다. 서비스 수지의 경우, 2단계 Shah Deniz 가스전 개발에 따라 서비스 수지 적자는 2012년부터 줄곧 확대될 것으로 보이나 경상수지 흑자 기조는 변함없을 것이다.
- 2010년의 경우, 수출은 전년 대비 45.1% 증가한 미화 213억불, 수입은 7.8% 증가한 미화 66억불로 집계되었다. 2010년 무역수지 흑자는 147억불로 2009년 86억불 대비 급증하였다.

- 무역수지 흑자의 일등공신인 원유 수출은 전년 대비 47.2% 증가한 201억불로 전체 수출의 94%에 이른다. 2009년 대비 2010년 수출이 급증한 이유는 원유에 대한 해외 수요가 증가하였을 뿐만 아니라 국제 원유가격도 많이 인상되었기 때문이다.
- 2010년 최대 수입품목은 기계류 및 장비로 2009년 34.8%에서 31.6%로 조금 줄었지만 여전히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그 다음으로 중요한 수입품목은 식품류(주로 가공식품, 음료, 담배)로 2009년 15.9%에서 20.5%로 보다 확대되었다.

주요 수출입품목 현황

구분	품목명	2010년
		비중(%)
수입	기계류 및 장비	31.6
	식료품	20.5
	금속제품	15.3
	운송수단	13.2
	기타	19.4
	계	100
수출	석유제품	94.1
	식료품	2.8
	금속제품	0.6
	플라스틱	0.4
	기타	2.1
	계	100

자료: EIU Country report 2011년 3월

- 대 아제르바이잔 최대 교역국은 이태리로 전체 무역규모의 25.8%를 점유하고 있다. 이태리는 아제르바이잔 원유의 최대 수입국이다. 그 다음으로 중요한 교역국은 프랑스이며 전체의 7.1%를 차지하고 있으며 러시아가 6.9%로 제 3위를 점하고 있다.

2010년 아제르바이잔 주요 교역국가 현황

순위	국명	교역금액(백만 USD)	비중(%)
1	이태리	7216	25.8
2	프랑스	1993	7.1
3	러시아	1919	6.9
4	이스라엘	1804	6.5
5	미국	1745	6.3
6	우크라이나	1354	4.9
7	터키	942	3.4
8	중국	926	3.3

자료원: 아제르바이잔통계청

2. 한국과의 교역동향 및 특징

- 2002년 이후 對 아제르바이잔 수출 증가 추세 지속
 - 유전개발 및 고유가로 인한 수입증대로 우리나라의 對 아제르바이잔 수출은 증가 추세이며 특히, 2006년 5월 고 노무현 대통령의 아제르바이잔 방문, 2007년 4월 아제르바이잔 대통령의 답방을 계기로 수출 증가세가 가속화되고 있다.
- 2008년 9월 세계 금융 위기 발발을 계기로 아제르바이잔 소비시장도 침체를 겪으면서 2008년에 정점을 찍고 '09년에 양국 무역량은 급감하였다. 2010년 세계 경제가 회복되고 국제유가도 다시 회복되면서 대 아제르바이잔 수출은 다시 상승곡선을 그리고 있다. 2011년 2월까지의 수출도 전년 동기대비 104.5%의 가파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다만, 수입은 2007년을 정점으로 계속 하강하고 있는데 아제르바이잔으로부터는 원유를 제외하고는 수입할만한 품목이 없기 때문이다.
- 2010년 주요 수출 품목은 자동차 및 부품, 합성수지, 철구조물, 경보신호기, 엘리베이터, 무선전화기 등 생활가전, 의료기기, 건설중장비 등이며, 이러한 주요 수출 품목 기조는 '11년에도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다만, SK C&C가 참여하는 ITS(지능형교통시스템) 프로젝트로 인해 철구조물, 경보신호기, 기타조명기기 등의 수출이 일시적으로 확대된 것으로 추정된다.

우리나라의 對 아제르바이잔 수출입 동향

구분		단위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교역규모	수출	백만 달러	4	11	19	32	47	130	255	150	184
교역규모	수입	백만 달러	0	0	1	0	0	316	12	9	0
무역(상품)수지		백만 달러	4	11	18	32	47	-185	243	141	184
수출증가율		%	4.0	189.9	74.4	68.6	46.9	175.2	95.5	-41.3	23.1
수출국 순위		순위	154	133	124	114	115	95	85	92	94
수입국 순위		순위	176	225	155	187	212	57	116	121	196

자료: KITA.net

- 對 아제르바이잔 수입은 2007년 원유수입으로 한 해 급증한 이래 계속 감소하고 있다. '10년도 주요 수입 품목은 기타 인쇄물, 포도주, 그림, 교통신호기 등이다.

2010년 한국의 대 아제르바이잔 주요 수입품목

(단위: 천 달러, %)

순위	수입품목명	금액	증가율
	총계	49	-99.5
1	기타인쇄물	21	-
2	포도주	15	-50.5
3	그림	6	-

자료: KOTIS, MTI 6단위

한국의 대 아제르바이잔 주요 수출품목

(단위: US\$천, %)

순위	품목명	2009		2010	
		금액(US\$천)	증가율(%)	금액(US\$천)	증가율(%)
	총계	149,557	-41.3	184,059	23.1
1	승용차	50,961	-65.7	118,145	131.8
2	화물자동차	59,135	27.3	11,704	-80.2
3	합성수지	9,071	-58.9	10,057	10.9
4	철구조물	6	96.3	8,457	132,844.2
5	운반하역기계	974	-	4,803	393.0
6	경보신호기	4	-99.5	3,689	83,189.0
7	무선전화기	3,801	-18.9	3,100	-18.4
8	엘리베이터	5,026	-21.5	2,512	-50.0
9	의료용전자기기	2,432	8.1	2,046	-15.9
10	기타조명기기	34	51.4	1,841	5,298.7
11	에어컨	1,072	7.7	1,655	54.4
12	자동차부품	1,554	140.2	1,518	-2.3
13	윤활유	34	-73.4	1,406	3,983.9
14	편직물	0	-	1,145	-
15	건설중장비	1,115	-84.4	976	-12.5
16	X선 및 방사선기기	664	-29.3	802	20.8
17	기타철강금속제품	27	5,092.6	617	2,151.9
18	TV카메라및수상기	724	124.8	601	-17.0
19	컴퓨터	88	78.7	583	563.6
20	연초류	0	-	576	-
21	기타유선통신기기	441	530.5	449	1.7
22	기타플라스틱제품	161	-9.9	405	151.9
23	음료	159	-61.3	400	151.4
24	운반하역기계부품	99	-50.6	376	279.4
25	표면활성제	430	-17.7	365	-15.1
26	직물제의류	14	119.2	335	2,247.1
27	벽지	51	-	301	492.1
28	계측기	209	109.0	291	39.1
29	유선통신기기부품	0	-	271	-
30	VCR	343	85.8	266	-22.4

자료: KITA.net, MTI 4단위, 2011년 3월 기준 최신 통계

3. 수입규제제도

가. 수출입 제한 또는 허가 품목

- 아래 품목은 수출입시 필히 정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무기 및 군용장비, 폭발물, 무기에 대한 과학지식 및 기술, 우라늄 방사물질 및 핵 기술, 마약 및 향정신제, 혈액 및 혈액성분, 야생동물 및 식물, 자원에 대한 정보, 고미술품, 일부 과학 보고서나 발명품, 의학 시설, 살충제, 동물용 약제, 다이아몬드 원석에 대한 수출, 아제르바이잔의 전략적 자원 수출 등
- 에틸 알코올이나 술, 담배는 일정한 쿼터가 있으며 정부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 또한 동물성 식품의 수입은 제한되어 있으며 아제르바이잔의 State Veterinary Committee(SVC)의 허락을 받아야 하며 거대한 위성 안테나 등의 통신 장비는 Ministry of Communications and Informational Technologies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
- 자연인이 아제르바이잔 역내로 수입할 수 없는 품목 또는 국제우편서비스로 수취가 금지된 물품 목록은 다음과 같다.
- 개인무기, 군사목적으로 사용되는 모든 물품, 폭발물, 군장비
 - 방사성 물질
 - 마약, 환각제 및 관련 장비
 - 음란, 폭력 및 테러 선동물
 - 마약, 환각제, 폭발물, 독극물 제조 원료

나. 비관세 무역장벽

빈번히 바뀌는 통관 규정, 세관의 자의적인 관세율 적용, 까다로운 절차 등이 비관세 무역장벽으로 작용하고 있다.

4. 관세제도

가. 관세 제도

아제르바이잔으로 들어오는 모든 수입품에 한해 우선 신고된 가치의 15%, 10%, 5%, 혹은 0.5%의 종가세(ad valorem tax)가 붙는다. 그러나 일부 품목의 under-invoicing(탈세를 위해 일부 물품의 가격을 적게 적는 행위)으로 인해 양이나 부피에 따라 종량세(specific tax)나 두 가지 관세를 합한 Combined Tax가 붙는 경우도 있다. 종량세나 Combined Tax는 종가세와 같이 15% 관세를 최고치로 두고 있다.

수입된 품목은 관세를 내기 전에 최고 3년까지 세관 창고에서 보관할 수 있다. 물품이 창고를 떠나는 순간 해당하는 모든 관세를 내야하며 또한 보관료가 청구된다. 전에 상의한 바가 없으면 보관료를 매우 높게 청구하는 사례가 있으므로 필히 세관 창고에 보관하기 전에 먼저 상의해야 한다.

아래 상품을 포함한 일부 수입품은 관세를 면제받는다.

- 외교용품
- 국제기구의 지원 프로젝트에 쓰일 용품
- 임시 수입품
- 해외 기업이 투자한 회사에 일하는 외국인의 개인용품

아제르바이잔 정부는 식료품 가격이 최근 가파르게 오르고 있어 물가 안정 대책의 일환으로 수입 곡식에 대해 부가세를 한시적으로 유예하는 법안을 도입하였다. 이에 따르면 2011. 1. 1일부터 8. 1일까지 수입된 곡식에 대해서는 부가세 납부가 면제된다.

나. 과세 종류

수입관세율	0~15%(과중평균관세율: 5.8%)
기타 과세 종류	- 소비세: 0.08~12.5%(담배, 술, 휘발유, 차 수입 시) · 차: 0.15AZM/cc(2,000cc미만)1AZM/cc+300AZM(2,000~3,000cc) - 부가세: 18% - 통관수수료: 0.15(모든 수출입 거래 시 부과)
수출관세	없음(단, 일부 금속 및 금속제품 제외)

자료: Doing business in Azerbaijan 2009 (2011년 3월 현재 최신자료)

5. 지적재산권

가. 개요

1996~1997년도에 대대적인 지적재산권 등록 및 보호 법규를 정비하고 실행하였다. 현재 Copyright Law, Law on Trademarks and Geographic Names, Law on Patents, Law on Topology of Integral Schemes 등 4개의 법안이 있다. 이들 법안을 토대로 모든 종류의 산업재산권(발명품, 특허, 실용신안, 산업디자인, 상표 등), 저작권(copyright) 등이 보호받는다. 이러한 지적재산권을 담당하는 총괄 부서는 없으나 State Agency for Standardization, Metrology and Patents에서 특허 및 상표 등록을 담당하고 State Copyright Agency에서 저작권 등록을 담당하고 있다.

세계지적소유권기구(WIPO), Eurasian Patent Convention (EAPC) 등의 국제 회의에 가입되어 있으나 아직 현실적인 지적소유권 보호는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특허는 한국과 같이 선출원주의(First-To-File)를 채택하고 있다.

나. 특허, 실용신안, 산업디자인 및 상표권 보호기간

상표권은 State Agency for Standardization, Metrology and Patents에서 관할한다. 기간은 10년이며 10년마다 재등록 할 수가 있다.

다른 사람이나 법인에게 소유한 특허 및 라이선스를 기증할 수 있으며 기증 시 필히 해당 기관에 신고해야 한다.

특허 보호기간

	보호기간	비고
특허	20년	새롭고 실용적이며 독창적인 발명품
실용신안	10년	새롭고 산업적으로 실용적인 개량기술
산업디자인	10년	외부 모양을 결정하는 예술적이나 구조상의 디자인

자료: 'Doing Business in Azerbaijan 2009', Baker&McKinse.

(2011년 3월 현재 최신자료)

다. 저작권

저작권은 따로 등록할 필요는 없으며 작가가 살아있는 동안과 그 후 50년간 보호된다.

컴퓨터 프로그램과 데이터베이스 또한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된다.

라. 법적 절차(지적재산권을 침해 받았을 경우)

상표권, 특허, 실용신안, 산업디자인을 포함한 모든 산업재산권 (Industrial Property Rights)의 침해는 1심 법원은 특허청 심판 위원회(The Appeal Commission of the Patent Office)에게 담당한다. 2심 법원으로는 일반인 및 법인을 상대로 하는 민간 법원과(District Court, City Court, Supreme Court, 3 단계로 구성) 법인만 상대하는 Economic Court가 있다. 저작권 침해에 대한 소송은 민간 법원에서 담당하고 있다. 기타 지적재산권 보호는 아제르바이잔 세관(State Customs Committee)과 경찰청에서 담당한다.

6. 통관 / 운송

가. 수출입 신고

□ 화물 수입 시 제출서류

- 서명이 된 수입 계약서(Import Contract). 필히 계약 번호도 적혀 있어야 함.
- 수입 신고서
- 해당하는 국가 기관에서 발행한 허가증(필요 시)
- 수입 화물의 선하증권(Bill of Landing)
- 상업 영수증(Sales Invoice)
- 원산지 증명서(C/O)
- 수입 화물의 품질 증명서

□ 화물 수출 시 제출서류

- 기업의 법적 신분 증명서
- State Statistics Committee상의 기업의 법적 신분 증명 번호(Legal Entity Code)
- 계약서 사본(필히 계약 번호가 적혀 있어야 함)
- 원산지 증명서(C/O)
- 공인된 은행으로부터 받은 선불 증명서류, 또는 신용장(letter of credit)

- 해당하는 국가 기관에서 발행한 허가증(필요 시)
- 수출 화물의 영수증(Sales Invoice)과 수출 화물의 포장 명세서(Packing list)
- 수출신고서

나. 임시수입(Temporary Import) 및 재수출 제도

아제르바이잔으로 원재료를 수입해 온 뒤 제품 제조 후 일정 시간 안에 재수출을 할 경우에는 Draw-back scheme을 통해 관세를 돌려받을 수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는 확연한 절차가 없어 일반 기업이 활용하기는 어렵다. 또한 세관에서 제조 및 재수출 시기를 정하며(보통 수입 후 2년) 최소한 일정량 이상을 제조해 수출하도록 지시할 수 있다.

아제르바이잔으로 물품을 임시수입 할 경우 반드시 먼저 세관의 허락을 받아야 하며 보통 6개월 이내에 재수출해야 한다. 또한 수입했을 때와 재수출할 때 물품의 일반적인 마모 및 손실 외에는 원상 그대로 수출되어야 한다.

임시수입품은 수입 시 부가가치세(VAT)를 포함한 관세를 지불하지만 재수출 후 같은 Draw-back scheme을 통해 돌려받을 수 있다. 일반적인 재수출 때와 같이 임시수입 시에도 확연한 절차가 없어 어려움이 많다.

IV. 투자

1. 투자환경

가. 외국인 투자 개방성

아제르바이잔 정부는 외국인직접투자(FDI: Foreign Direct Investment)가 경제 발전에 끼치는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FDI를 공식적으로는 환영하고 있다. '94년 이래 대규모 외국인 투자가 유입되면서 아제르바이잔 에너지 분야는 눈부신 발전을 보였지만 극심한 관료주의, 허술한 법치제도, 정경 유착된 이해집단의 독점행태는 非 에너지 분야로의 외국인 투자를 저해하였다.

세계은행(World Bank) 2008년 '국가별 비즈니스 환경(Doing Business)' 보고서에 따르면, 아제르바이잔은 '07년 대비 소폭 개선된 178개국 중 96위에 올랐는데 이는 주로 'one-stop-shop'이라는 간소화된 회사 등록 시스템을 구축한 데에 기인하고 있다.

'92년 제정된 외국인투자보호법은 국가 안보 분야처럼 법으로 금지하는 분야를 제외한 모든 분야의 투자 활동을 외국 투자자들에게도 내국인과 똑같이 허용하고 있다. 다만, 에너지, 통신 및 금융 부문에 있어서는 정부가 일정 부분 통제하고 있다. 예컨대, 유전이나 가스전을 개발하려면 국영석유회사(SOCAR: State Oil Company of Azerbaijan)와 생산물분배협정(PSA: Production Sharing Agreement)을 체결하고 국회 비준을 받아야 한다. 금융 부문 외국인 투자는 외국 소유 은행의 비중이 전체 상업은행 시장의 50% 이내가 되도록 제한하고 있다.

아제르바이잔은 현재 WTO 가입국은 아니지만 2011년 하반기 가입을 목표로 제도 정비 등 필요한 절차를 추진 중에 있다. 비 에너지 분야에도 외국인 투자를 유치하려면 안정되고 예

촉 가능한 비즈니스 환경을 만드는 일이 필수불가결하다. 아제르바이잔 정부는 이러한 맥락에서 국세부(Ministry of Tax) 내에 'One-Stop-Shop'이라는 간소화된 회사등록 시스템을 구축하여 등록에 소요되는 시간을 수주에서 3일로 단축시켰다.

외국기업은 현지 기업과의 합작기업(Joint Venture), 자회사(Subsidiary), 대표사무소(Representative office), 지사(Branch) 형태로 아제르바이잔 시장에 진출할 수 있다. 외국인 투자보호법에 따르면 외국투자기업은 내국기업과 동등한(not less favored) 대우를 받으며, 적법하게 세금을 냈다면 과실송금이 보장된다. 그리고 외국인 투자기업에 불리한 법이 입법되면 이전 법에 의해 10년간은 보호받게 된다. 다만, 이 조항은 세법 개정의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나. 국유화 및 징발에 대한 보상

외국인 투자가는 몇 가지 예외적인 상황을 제외하고는 국유화 또는 징발 조치에 대해 외국인 투자보호법에 의해 보호를 받는다. 국민이나 국가 이익에 해가 되는 경우, 의회 결의에 따라 해당자산을 국유화시킬 수 있다. 그리고 자연재해, 전염병, 비상사태 발생시 내각의 결정에 따라 징발 조치도 할 수 있다.

외국인 투자기업이 국유화나 징발로 피해를 입었을 경우 법에 의해 즉각적인 상응하는 보상을 받게 된다. 아직까지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국유화나 징발 조치는 단 한 건도 없었다.

다. 분쟁 해결

아제르바이잔 분쟁 해결 제도는 개선은 되고 있지만 여전히 미흡하다. 재산권이나 계약상 권리를 보호받을 효과적인 수단이 결여되어 있다. 아제르바이잔 정부는 공식적으로 사법부에 대해 중립을 선언하고 있지만 사법부는 힘이 없고 판사들은 진보적인 세법이나 경제법을 잘 모르고 경험도 부족하다. 상거래 분쟁을 관장하는 경제법원(Economic Court)의 강제 구속력은 미약하며 일반적으로 부패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재판결과가 일관성이 없는 경우도 종종 있다.

아제르바이잔은 국가 간 투자 분쟁 처리에 관한 세계은행 협약, 다자간투자보증기구(MIGA: Multilateral Investment Guarantee Agency), 외국중재판정 승인 및 집행에 관한 뉴욕협약에 가입되어 있다. 그리고 아제르바이잔 민사소송법은 외국중재판정이 자국법에 위배되지 않는 한 판정결과를 집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사실상 분쟁 해결을 위한 중재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아제르바이잔 파산법(Bankruptcy law)은 제 기능을 못하고 있으며 거의 유명무실하다.

라. 외국인 투자 인센티브 및 의무사항

아제르바이잔에는 오일가스분야 생산물분배협정(PSA) 체결 시 제공하는 인센티브 외에 다른 어떤 투자 인센티브는 없다. 정부의 민영화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기업을 인수하는 외국인 투자 기업은 향후 재투자과 고용승계의 의무를 갖게 되나 국내로부터 필요물품을 구매해야 한다거나 생산물의 일정량을 수출해야 하는 의무는 갖지 않는다. 그리고 아제르바이잔 국민을 반드시 고용해야 할 의무도 없다. 다만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하려면 고용주는 노동부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한다. 아제르바이잔에서 취업하려는 외국인은 거주지 관할당국에 신고 후 노동부로부터 노동 허가를 받아야 하며 내국인과 같이 소득세 및 사회보장세 납세

의무를 진다. 30일 이상 체류를 해야 되면 ID카드도 취득해야 한다. 외국 법인의 대표사무소나 지사의 대표 및 부대표(deputy)는 노동 허가가 필요 없다.

마. 자산 소유

아제르바이잔에서 부동산 거래를 규제하는 법률은 모기지법(2005), 토지법(1999), 토지개혁법(1996), 토지임대차법(1999), 토지시장법(1999) 등이 있다. 아제르바이잔 국적자나 아제르바이잔 법인(외국 투자기업 포함)은 합법적으로 부동산을 소유, 매매할 수 있으나 외국인이나 외국기업은 토지를 소유할 수 없고 임차만 할 수 있다.

바. 재산권 보호

아제르바이잔 정부는 세계은행과 함께 자산등록시스템 개선을 추진해오고 있지만 동 시스템에는 여전히 불필요한 요구사항들이 많고 일반적으로 뇌물을 요구하는 등 비효율적인 면이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2006년에 아제르바이잔 정부는 법무부 산하 공증사무소망을 통한 주택 거래 체계를 구축하였다.

‘90년대 중반 아제르바이잔은 세계지적재산권기구(WIPO: World Intellectual Property Organization)의 지원 하에 국가차원의 지적재산권 등록 및 보호책 마련에 착수하였다. 이러한 조치의 일환으로 ‘96년에 저작권법, ‘97년에 특허법, ‘98년에 상표법이 입법되었다.

아제르바이잔은 현재 산업재산권 보호에 관한 파리 협약, 문학예술작품 보호에 관한 베른 협약 등 다수의 국제 협약에 가입되어 있다.

아제르바이잔 국가저작권보호청(State Copyright Agency)은 다수의 정부부처 대표자들로 구성된 반해적행위위원회(Anti-Piracy Commission)를 결성하고, 기습검열, 저작권법 위반에 대한 민사 소송을 주도하는 등 다소 개선된 면을 보여주고 있으나 지적재산권 보호는 여전히 잘 되지 않고 있다. 해적판 소프트웨어나 영상물, 짝퉁 명품이 팔리는 것을 쉽게 볼 수 있다.

사. 규제 제도의 투명성 및 부정부패

아제르바이잔 정부는 지난 몇 년간 규제 제도를 개선해 왔지만 여전히 투명성 결여, 부패성 소지 논란은 일고 있다. 투명치 못한 정책, 자유경쟁을 촉진하는 효과적인 법규 부재가 외국인 투자에 큰 걸림돌이 되고 있다.

아제르바이잔에서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 많은 기업인은 관료주의적인 행정 때문에 필요한 허가나 인증을 받는 데에 많은 시간을 낭비하고 있다며 계속해서 하소연을 하고 있다.

부정부패는 특히 비 에너지 분야의 외국인 투자를 저해하는 주요 원인이 되고 있다. 반 부패법이 있긴 하지만 유명무실하며 각종 규제 제도, 과세, 분쟁 해결제도에 있어 부패 소지가 많다. 정부의 투명치 못한 행정, 규제 남용, 미약한 계약이행 시스템은 비즈니스 하기 어려운 환경으로 만들고 있고 실제로 이 때문에 굴곡한 외국인 기업들이 아제르 바이잔을 떠났다.

2007년 여름 아제르바이잔 정부는 투명성 재고 및 부패와의 전쟁을 선포하는 국가 전략(2007~2011)을 채택하고 공무원들의 윤리강령을 도입하였다. 동 전략은 기존의 반 부패 프

로그를 대체, 보완하는 것으로 돈세탁 방지, 회계법 개정, 정부 구매의 투명성 재고, 반부패위원회의 활동 개선, 관료주의적 불필요한 규제요소 제거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아제르바이잔 대통령은 2011. 1 월말 반부패 정책을 강화하도록 하달하였고 2 월 14 일에 교통경찰 근무지침 개선 법령에 서명하였다. 이에 따르면, 교통법규 위반자는 현금이 아닌 은행 계좌로 벌금을 지불하여야 하며 징수된 벌금의 4 분의 1 은 교통경찰 급여로 지급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세관의 통관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Single window 통관 시스템이 구축될 전망이다. 이러한 반부패 조치는 부패 관행을 없애려는 순수한 의도라기 보다는 중동 및 아프리카 소요사태의 전이를 의식한 정부 기득권세력의 ‘민심 달래기’로 해석하는 의견도 있다.

국제투명성기구가 발표한 2010 년 부패지수에서 아제르바이잔은 178 개국 중 134 에 랭크되어 ‘06 년 대비(163 개국 중 130 위) 소폭 개선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아. 노무

아제르바이잔은 경쟁력 있는 가격의 숙련된 기술 인력을 풍부히 갖추고 있지만 동시에 우수한 전문 인력을 채용하기는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 이는 양질의 교육이 뒷받침되지 못하고 우수인력의 외부 유출이 심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90년대에 구 소련의 산업경제체제가 붕괴되면서 수많은 실업자가 양산되었다. 아제르바이잔 정부는 실업률을 1%로 추정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10%가 넘는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아제르바이잔 정부는 월 최저임금을 40 AZM에서 현재 75AZM(약 \$94)으로 인상하였다. 1999년에 발효된 노동법에 따르면 주 노동시간은 40시간이고 파업 권리를 인정하고 있다. 아제르바이잔은 국제노동 기구(International Labor Organization)에 가입되어 있으며 현재 세계은행과 공동으로 국가 연금제도를 개혁 중에 있다.

2. 외국기업 투자동향

대(對) 아제르바이잔 FDI(Foreign Direct Investment)는 거의 대부분이 오일가스 부문에 유입되고 있으며 영국의 권위 있는 리서치 기관인 EIU(Economist Intelligence Unit)에 따르면, ‘07 년 아제르바이잔 1 인당 FDI 누적액은 미화 1,140 달러로 CIS 국가 중 카자흐스탄(\$2,200) 다음으로 높다. 아제르바이잔 자본시장은 걸음마 단계여서 포트폴리오 투자는 거의 전무하다. 국가별 FDI 현황은 아제르바이잔 국제석유가스컨소시엄인 AIOC(Azerbaijan International Operating Company) 지분 비율로 유추해 보면, 영국(34%), 미국(25%), 일본(14%), 노르웨이(9%), 터키(7%), UAE, 이란, 러시아, 프랑스, 이탈리아 등이 주요 투자국이다.

2010 년 아제르바이잔 FDI 유입액은 약 30 억 달러로 집계되었으며 영국이 부동의 1 위 투자국의 지위를 누리고 있다. 아제르바이잔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영국, 미국, 체코, 일본, 노르웨이, 터키 한국 및 프랑스 8 개국이 전체의 94.8%인 28.6 억불을 투자하였다. 주요 국가별 투자 비중을 보면, 영국 51.9%(15.6 억불), 미국 9%, 체코 7.5%, 노르웨이 4.7%, 터키 3.9%, 한국 1.7%(약 5 천만불), 프랑스 1.2%로 나타났다. 영국의 투자 대부분은 BP 사가 한 것이며 BP 는 아제르바이잔 ACG 유전, Shah Deniz 가스전, BTC 송유관,

Sangachal 오일터미널과 같은 유전 및 가스전을 운영하고 있다. BP 사 2009 년 발표자료에 따르면 BP 는 94 년 첫 투자 진출 이래 미화 295 억불을 투자하였다.

2005~2006 년에 BTC(Baku-Tbilisi-Ceyhan Oil Pipeline)나 SCP(South Caucasus Gas Pipeline Project)와 같은 대형 석유가스 프로젝트가 종결되고 외국투자기업의 과실송금이 시작되면서 '06 년부터 대 아제르바이잔 FDI 순유입은 마이너스로 전환되었다. 아제르바이잔 기업의 해외투자 확대 추세도 이러한 현상을 부추기고 있다.

지역별 FDI 현황을 살펴보면 대부분의 해상 및 육상 유전이 위치해 있는 바쿠시에 외국인 투자가 집중되고 있으며, 그 다음으로 바쿠와 인접해 있는 아제르바이잔 최대 석유 화학 산업단지인 숨가이트(Sumgait)시로 일부 유입이 되고 있다. 향후에는 정유 산업 등 다운스트림 분야로 외국인 투자가 확산될 전망이다.

非 에너지분야 최대 FDI 유입처는 이동통신 부문이다. 동 분야에 Azercell(터키, 스웨덴), Bakcell(이스라엘), Azerfon(독일, 영국), Cartel 4 개의 외국투자기업이 활동하고 있다. 그 밖의 주요 외국투자기업은 Keppel(조선소), Garadagh Cement, Castel(맥주), Coca Cola, Pepsi Cola, Hyatt Hotels Baku 등이다. 아제르바이잔에서 활동하고 있는 외국투자기업 수는 63 개국 약 200 개 사로 추산되고 있다.

비 에너지 부문 외국인 투치 유치 주요 수단 중 하나는 민영화 정책이다. 아제르바이잔 정부는 '전략적 투자가에 의한 인수' 또는 '입찰' 방식을 주로 활용하여 민영화를 추진하고 있다. 민간부문이 GDP 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95 년 30%에서 '07 년 80% 정도로 부쩍 높아진 이유는 일련의 민영화 정책에 따라 국유 자산이 민간부문으로 이양되었기 때문이다.

3. 우리기업 투자동향

- 한국의 대 아제르바이잔 투자는 1997년 1건 기록 이후 2006년까지 투자실적이 없었으나 2007년 3건, 2008년 6건, 2009년 16건, 2010년 6건이 투자되어 대체로 해를 거듭할수록 투자 건수가 늘어나는 추세를 보이고 있는데, 이는 2007년 4월 아제르바이잔 대통령 방한 시 각종 MOU 체결 및 아제르바이잔의 IT, 항만, 도로, 건설 등 인프라 사업에 한국 기업 참여 확대를 촉구한 결과라 볼 수 있다. 한편 산유국으로서의 아제르바이잔에 대한 업계의 기대감도 동시에 작용한 것으로 판단된다.
- 아국기업의 자본 투자는 건설업이 전체의 93.5%를 차지하고 있으며 그 밖에 부동산업/임대업이 4.8%, 숙박/요식업이 1.4% 등을 차지하며, 연도별 투자 현황은 다음 표와 같다.

(단위: 건, US\$천)

연도	신고건수	신고금액	투자건수	투자금액
1997	1	20	1	5
1998~2006	0	0	0	0
2007	9	30,369	3	76
2008	10	2,869	6	2,373
2009	19	11,425	16	771
2010	6	87	6	87
누계	45	44,771	32	3,311

자료: 수출입은행, 2011년 3월 기준 최신 통계

- 향후 한국의 대 아제르바이잔 투자는 발전소, 레저복합단지 및 수처리 등 인프라개발 및 제조업 중심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2010년에 아제르바이잔 최초로 한국기업의 제조업(생산예정품목:차선용 도료) 합작 투자 계약이 체결되었고 2011년부터 본격적인 설비투자가 이뤄질 전망이다.
- 아제르바이잔의 대 한국 투자: 실적 없음.

4. 주요 투자법 내용

가. 외국인투자유치제도 개요

1) 법령 및 형태

- 아제르바이잔 외국인투자 관련 법령은 ‘외국인투자보호법(1992.01.15)’, ‘투자활동법(1995. 01.13)’, ‘사유화법’ 등이 있다.
- 외국인 투자자는 법에서 금한 분야를 제외한 모든 투자 활동을 할 수 있으며, 외국인 투자자는 아래에서 열거한 투자 형태 중 어느 하나를 취할 수 있다.
 - 현지 로컬 법인과 합작기업 설립
 - 100% 출자기업 설립
 - 로컬 기업 인수, 건물 등 자산, 주식 및 채권의 취득 등
 - 토지 및 천연자원, 기타 권리 사용권의 취득
- 외국투자기업은 합작기업, 100% 출자소유기업, 외국법인의 현지 대표사무소를 포함한다.

2) 외국인 투자자 보호 주요내용

- 아제르바이잔 법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외국인은 내국인과 차별 없이 동등하게 취급 받는다. 경우에 따라 외국인 투자자는 특혜를 받을 수도 있다.
- 납세의무를 적법하게 이행한 외국인 투자자는 투자행위로 발생한 이익금을 본국에 송금할 권리를 지닌다.
- 법 개정으로 피해가 발생할 경우, 외국인 투자자에게는 개정법 적용이 10년간 유예된다. 다만, 국가 안보, 국방, 공중 보건을 위한 경우나 세법개정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
- 국민에게 해가 되거나 국익을 해치는 경우에 한해 국회 결의에 의해 국유화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자연재해나 전염병 발생 등 비상사태가 발생할 경우 내각 결의에 의해 몰수 조치를 할 수 있다. 두 경우, 피해를 입은 외국인 투자자에게 즉시 그리고 적절히 보상해야 한다.
- 분쟁 발생시 아제르바이잔 법원 또는 양측의 합의에 따라 국제 중재기관에 중재를 요청하여 관련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나. 투자유치 인센티브

- 아제르바이잔에는 에너지 및 농업 등 특정산업 부문을 제외하고는 일반적인 투자유치 인센티브는 없으며 지역에 따른 인센티브도 존재하지 않는다.
- 아제르바이잔은 안정적인 식량공급 확보를 위해 농업 종사자에게는 토지세를 제외한 어떠한 세금도 부과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세제 혜택 외에 농무부에서는 농가 지원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고 관련 예산을 1 억 2,000 만 달러로 확대할 계획이다. 뿐만 아니라 농가에 필요한 유류는 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될 예정이다.
- 유전 및 가스전 개발을 위해 아제르바이잔 정부와 생산물분배협정(PSA) 계약 체결 시 통상 부가세 및 관세 면세 혜택이 주어진다. PSA 계약자 또는 하도급계약자(subcontractor)는 유전 개발에 필요한 각종 장비나 설비, 고정자산, 용역을 수입하거나 재수출시 관세를 면제받는다. 다만 통관수수료는 부과된다. 뿐만 아니라 원유 생산이나 수출입 등 모든 관련 활동에 따라 창출되는 재화나 용역에 대해서는 부가세가 면세된다.

5. 진출형태별 절차

가. 개관

- 아제르바이잔에서 법인체(회사)를 설립하는 행위는 다음의 두 가지 법률적 근거에 의함.
 - 민법 제 2 조 (2001 년 9 월 1 일 개정)
 - 법인의登記 및登記부 관련법률(2003 년 12 월 12 일 개정)
- 아제르바이잔에 투자 진출하고자 하는 외국인(법인)은 다음 두 가지 중 하나를 선택하여 진출 할 수 있음.
 - 대표사무소나 지사와 같은 형태
 - 법적 조직형태를 갖춘 법인체
- 등록절차 일원화
 - 2008년 아제르바이잔 정부는 영리법인 또는 대표사무소나 지사의 등록에 있어서 “원스톱숍(one-stop shop)”시스템을 도입, 등록 절차를 대폭 간소화
 - 원스톱숍은 현지인 법인과 외국인 법인에게 공히 적용되며 아제르바이잔에서 사업을 하고자 할 경우의 회사설립은 단일 창구인 세무부에서 모든 관련서류를 일괄 처리

나. 투자형태별 법률적 구분

1) 대표사무소 및 지사

□ 법적 지위 및 형태

- 외국법인의 본격적 투자진출 이전에 대표사무소나 지사의 설립이 자주 이용되며 외국 법인의 대표사무소와 지사는 아제르바이잔의 법인으로 간주되지 않음.
- 아제르바이잔의 민법에 따르면 대표사무소는 외국법인의 별도 하위부서로 해당법인의 이익을 대변하고 보호하는 기능만 갖고 있기에 대표사무소는 상업 활동에 종사할 수 없음.

- 지사는 대표사무소의 기능을 포함하여 법인의 일부 또는 모든 기능에 참여하는 법인의 별도 하위부서이므로 지사의 활동 범위는 대표사무소보다 더 넓다고 할 수 있음.
- 지사는 법인의 일부 또는 모든 기능을 수행할 수 있기 때문에 상업 활동에 종사할 수 있음.

□ 등기

- 외국 영리 법인의 지사와 대표사무소는 세무부에 등기, 반면 외국 비영리 법인은 법무부에 등기
- 영리법인의 지사와 대표사무소: 세무부에 관련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원칙적으로 접수일로부터 업무일 3일 이내에 등기됨.
- 비영리 법인의 지사와 대표사무소 : 법무부에 관련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원칙적으로 신청일로부터 업무일 40일 이내에 등기됨.
- 2009년 9월 1일 개정 발효된 관련법령에 따라 외국 비영리 법인의 지사와 대표사무소는 해당 모(母)회사와 작성한 협정문안대로 등록해야 함. 이 개정된 법령에는 아제르바이잔에 소재하는 외국인 비영리 법인의 지사나 대표사무소의 부책임자는 아제르바이잔 시민이어야 한다고 규정.

□ 비용

- 외국법인의 지사, 대표사무소 등기비용은 AZN 220(약 US\$275)이며, 등기를 마친 후에 직인(일종의 회사 인감)과 은행계좌를 개설

2) 영리법인

- 아제르바이잔에서 설립된 영리법인은 세무부 국가등기 대상이 되며, 세무부는 필요서류 제출 후 영업일 3일 이내에 등기가 이루어 지도록 해야 함.
- 은행, 보험회사 및 기타 기업의 등록세는 AZN 220(약 US\$275)이며 일반 기업의 경우 AZN 11(약 US\$15)임.
- 아제르바이잔의 법인은 일반적으로 설립 결의서와 정관이 필요. 그러나 설립 결의서는 1인 참여자에 의한 회사 창립에서는 필요하지 않음.
- 설립 결의서는 설립자의 권리와 의무, 그리고 설립자와 법인 사이 관계를 규정함. 일반적으로 정관은 법인의 구조와 경영 그리고 그것과 관련된 경영자와 주주의 권리를 규명함.
- 아제르바이잔의 기업에 관한 법률은 합자 주식회사 정관자본금의 최저한도를 정해 놓고 있으며 일부 업종의 경우에는 (예를 들어 은행과 보험회사) 특정한 법률에 의해 추가 요건이 부과됨.

- 아제르바이잔 민법은 법인을 영리법인과 비영리법인으로 구분하며, 영리법인은 다음의 네 가지 형태로 구분됨.
 - 합자회사(Joint-Stock Company, 폐쇄형과 개방형으로 나뉨)
 - 유한책임회사(Limited Liability Company)
 - 합명회사(General Partnership)
 - 유한합명회사(Limited Partnership)
- 이 중 일반적으로 선호되는 회사설립형태는 합자회사와 유한책임 회사이며, 아제르바이잔 법령에 의한 두 회사유형의 구분은 다음과 같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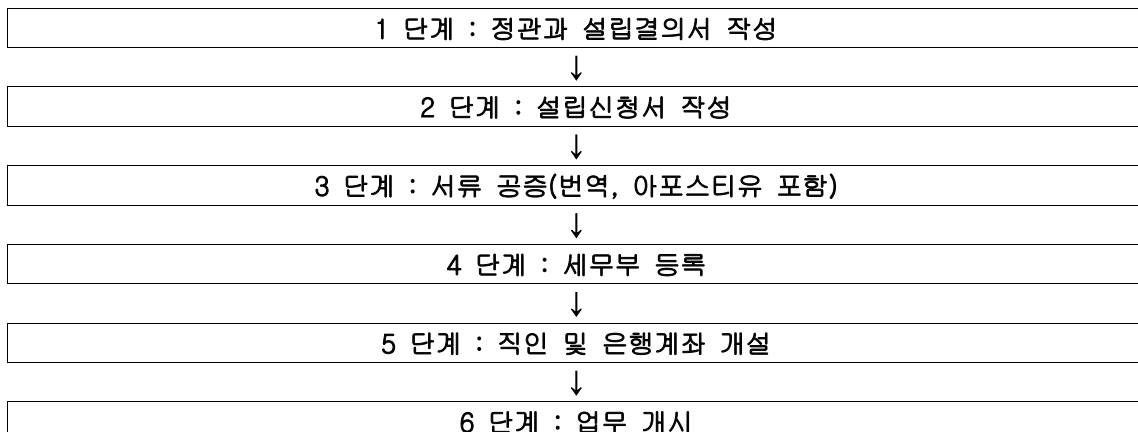
구분	JSC(합자회사)	LLC(유한책임회사)
발기인수	- 최소 1 명 이상 - 최대 50 명(폐쇄형) - 50 명이 초과될 경우 개방형으로 전환 또는 청산	- 최소 1 명 이상 - 법정 최대 인원에 대한 제한은 없음.
발기인의 책임	- 자본납입액 한도에 대해 책임	
최소자본 요건	- 개방형: AZN 4,000 - 폐쇄형: AZN 2,000 - 정관자본(Charter Capital): 등록 전 전액 납입 - 현물출자: 독립 감사인에 의한 평가 필요 - 자본가치결정: ① 신규 설립법인의 경우 에는 발기인 회의, ② 기존 법인의 경우에는 주주총회에서 결정	- 자본요건은 없으나 민법(the Civil Code 2000)은 적정한 행정 기관이 정하도록 규정 하고 있음. - 정관자본(charter Capital): 등록 전 전액 납입 - 현물출자: 독립 감사인에 의한 평가 필요
증권	- 증권은 국가증권위원회(the State Securities Committee)에 등록되어야 함. - 개방형 JSC 는 공개매수(Open Offering), 폐쇄형 JSC 는 비공개매수(Close Offering)을 통해 증권 매매	- 납입자본이 증권일 필요는 없음 따라서 국가증권위원회 등록이 불필요
지분양도 요건	- 개방형: 지분양도제한 없음. - 폐쇄형: 주주들은 타 주주의 지분양도에 우선 반대권이 있음.	- 설립 인가서에 따로 조항이 없으면, 사원은 제 3 자에게 지분 양도 가능함.
기업지배 구조	- 주주총회(General Meeting of Shareholders): 최고 의사결정기구로 정관 및 자본금 변경, 청산, 조직 변경 등 중요 경영 사 안에 대한 결정권을 가짐. - 감독기구(Supervisory Board): 주주 50 인 이상의 JSC 는 반드시 구성하여야 함. - 경영기구(Management Body): 이사회 또는 개별이사의 형태를 가질 수 있음.	- JSC 와 동일 - 단 감독기구는 강제요건이 아니며, 사원이 원할 경우 설치할 수 있음.
공시	- 연차보고서와 대차대조표를 의무적으로 공시	
청산 및 구조조정	- 자발적 청산, 구조조정은 주주총회 결정에 의함. - JSC 는 LLC 로 조직변경 가능	- 자발적 청산, 구조조정은 주주 총회 결정에 의함. - LLC 는 JSC 로 조직변경 가능
조세	조세처분 동일	

3) 외국인 투자 진출 선호형태

- 아제르바이잔에서 외국인들이 대체로 많이 선택하는 투자진출 형태
 - ⊙ 지사 혹은 대표사무소
 - ⊙ 세제 운영상 또는 고용 관련 경영 및 관리가 간편하고 현지에서의 사업영위에 법적 제한이 적은 유한책임회사(LLC)임.
- 대규모 사업의 경우에는 주식회사(Joint Stock Company)가 적합하나 초기 진출 시에는 거의 활용하지 않는 형태임.

나. 설립절차 및 구비서류

- 최근 도입된 One Window 시스템으로 인해 모든 영리 법인 및 지사, 대표사무소 설립과 등록은 세무부에서 총괄적으로 담당하고 있음.
- 설립 시 필요한 모든 서류는 국가에서 영문 번역 및 서류 공증을 받아야 하며, 외교 통상부의 아포스티유를 받아야 공식 서류로 인정. 모든 준비된 서류는 아제르바이잔어로 번역, 공증을 받아야 현지에서 사용할 수 있는 서류로 인정받음.
- 대표사무소 및 지사 설립 필요서류
 - 본사 이사회 결의서
 - ⊙ 지사 설립
 - ⊙ 지사장 임명
 - 지사장 위임장
 - ⊙ 지사장 권한 지정
 - 본사 정관
 - ⊙ 지사 법적 주소 (Lawful address)
 - ⊙ 신청서
- 일반 법인체(예:유한책임회사) 설립 필요서류
 - 정관
 - 외국인 여권
 - 외국인의 business background 관련 서류 (예시:한국 사업자등록증 등)
 - 법인체 법적 주소
 - 신청서
- 법인 설립절차



6. 투자입지여건

아제르바이잔은 10개의 경제지구(Economic Region)와 본토와 떨어져 아르메니아에 고립되어 있는 Nakhchivan 자치구, 아르메니아와 분쟁 중인 Nagorno-Karabakh 공화국 (아제르바이잔의 Yukhari Garabag 경제지구의 주요구역과 Kelbajar-Lachin 경제지구 모든 구역을 포함) 등 크게 12개 지역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이 12지역은 또한 59개의 구역 (District-rayon)과 11개의 도 시(sahar)로 나뉘어져 있다.

참고로 아르메니아와 분쟁 중인 Nagorno-Karabakh 공화국의 경우 1990년 초반부터 아르메니아의 군이 주둔해 있다. 1991년 독립선언 이후 3년간 분쟁이 있었고 1994년에 휴전 협상을 맺었으나 아직까지 평화협정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1) Absheron(압세론)

수도 바쿠(Baku: 인구 205만 명)를 포함하고 있는 이 지역은 Absheron 반도에 위치하고 있다. Absheron 은 아제르바이잔 국내총생산(GDP)에 가장 크게 기여하고 있는 지역이다. 주로 낮은 산과 평지로 이뤄져 있으며 기후는 전형적인 아열대 기후이다.

이 지역에는 돌, 석회, 시멘트, 석영(quartz), 벽돌 및 모래가 많고, Samur강과 Kura강으로 연결되어 있는 인공수로가 있어 수자원이 풍부하다.

가스 추출, 석유공학, 석유화학, 철금속과 비철금속의 야금, 에너지, 경공업, 식품가공, 건설, 교통, 서비스, R&D 등의 산업이 발달하고 있으며 유리과 폴리머(polymer)도 생산되고 있다.

농업은 도시 근교에서 주로 이루어지고 있다. 축농업, 채소, 와인, 화초, 아열대 과일 등이 생산되고 있으며 올리브, 사프란, 피스타치오 등의 재배도 가능하다.

이 지역과 연결되는 주요 도로, 철도, 항만 및 공항 등의 인프라 구축이 잘 되어있으며 북부에는 해양 리조트가 발달되어 있다.

2) Aran(아란)

아제르바이잔 민족의 첫 정착지인 Aran지역은 아제르바이잔의 중앙에 위치하고 있다. 이 지역의 반은 해수면 아래에 있는 평지이며 기후는 건조한 아열대 기후이다.

주요 자원은 원유, 천연가스, 요오드 브롬광석과 건설자재 등이며 풍부한 태양광과 Kura와 Araz강의 수자원, 거대한 토지 등의 지형적 장점이 있다. 남서쪽은 주로 제조업이 발달하고 있으며 화학, 기계, 식품, 건설자재 산업이 지역경제를 주도하고 있다.

Mingechevir, Salyan과 Neftchala 구역(rayon)에는 주로 화학공장이 있으며 Ali-Bayramli, Salyan 구역에는 중공업 공장이 주로 있다. Mingechevie는 면직물, Yevlakh 구역은 모직물 가공, Ali-Bayramli는 가죽, Gazi Mammad의 카펫 등이 주요 산업이다.

Aran은 교통 요충지에 위치하고 있다. 수도 바쿠와 그루지아, 이란과 터키를 연결하는 주요 도로 및 철도가 Aran 지역을 통과한다. Yevlakh와 수도 Baku는 비행노선이 연결되어 있으며 Alet-Astra 고속도로가 건설 중이므로 무역으로 인한 경제 성장을 기대할 수 있다.

꿀, 담배, 과일, 녹차, 누에고치, 과일주스, 통조림, 가죽, 아스팔트, 식수, 비단, 가구, 철근 콘크리트 및 건설자재의 제조와 가공 등 다양한 창업기회가 있다.

3) Daglig Shirvan(달리그 쉬르반)

이 지역은 아제르바이잔 중앙에 위치하고 있으며 평지와 산악지대로 이루어져 있다. 평지의 기후는 건조하고 더운 편인 반면 산악지대의 기후는 다소 춥다. 돌, 모래, 찰흙, 암설(detritus) 등의 다양한 건설자재가 매장되어 있으며 산악지대에도 많은 양의 광물이 매장되어 있다. 아름다운 온천이 많이 있으며 지역 특유의 음식과 풍습 등은 관광지로서의 발전이 기대된다. 또한 목축, 포도재배 및 포도주 제조가 주요산업이며 전통적인 카펫 생산도 하고 있다. 다양한 가공 및 제조업 외에도 이 지역에서는 관광업의 사업 기회가 크다.

4) Ganja-Gazakh(간자-카자크)

이 지역은 온화한 기후와 아름다운 경치로 휴양 및 관광산업의 중심지로 개발하기에 적합하다. 해발 1,500m에는 웅장한 Goy-Gol 리조트와 Hajikend 리조트가 있으며 Naftalan의 기름은 병을 치유하는 효과가 있다.

아제르바이잔에서 두 번째로 큰 경제규모를 가지고 있으며 아제르바이잔 총 GDP의 12~13%를 차지하고 있다. 주로 제조업과 가공업이 발달하였으며 중공업도 지역산업을 주도하고 있다. 야금 산업은 Ganja와 Dashkesan 구역에서 주로 발달되어 있으며 자동차, 농업, 기계, 서비스 및 통신도 주요 산업이다.

아제르바이잔 총 농업의 13~14%, 감자의 80~85%, 포도의 28%, 목축업의 15%가 Ganja-Gazakh 경 제지역에서 생산 또는 재배되고 있다.

5) Guba-Khachmaz(구바-카치마즈)

아제르바이잔의 북동쪽에 있으며 북쪽으로는 러시아, 동쪽으로는 카스피해를 끼고 있다. 농업과 제조업이 주요 산업이며 채소 및 과일 통조림, 어류 가공, 카펫 생산이 이 지역의 특산품이다. 곡물 재배업과 유제품 생산업은 Khachmaz와 Devechi 구역에서 발달되어 있다. 석유화 가스 등의 중공업은 Siyazan의, 전자제품은 Guba의, 고철 제조업은 Khachmaz의 주요 산업이다.

원유, 혈암유(shale oil), 천연가스, 모래, 자갈과 점토가 많이 매장되어 있으며 수자원도 풍부하다. 이 지역은 요양원과 온천지도 대거 갖추고 있어 관광업이 유망하다. 널리 알려진 Nebran 휴양지 또한 이곳에 위치하고 있다.

6) Lankaran(랜코란)

남동부에 있는 Lankaran 경제지구의 경우 서쪽과 남쪽에는 이란을, 동쪽에는 카스피 해안을 접하고 있다. 크게 저지대 Lankaran과 산악지대 Talish 지역으로 분류되고 7개의 다양한 기후대가 혼재해 있다.

벽돌, 모래, 석회 등 다양한 건설자재가 매장되어 있고 울창한 숲과 비옥한 토지가 이 지역의 주된 자원으로 이 지역의 26%가 숲으로 덮여 있다.

농업 가공이 지역의 주요 산업이며 비옥한 토지와 습한 아열대 기후, 충분한 노동력은 농업을 육성하기에 적합한 조건이다. 이 지역에서의 채소, 차, 감귤, 과일재배 및 포도주 제조업은 유망 산업 분야이다.

Baku-Astara 고속도로와 철도가 주된 교통로이다. 향후 North-South Transport Initiative 정책의 일환으로 이란-아제르바이잔-러시아-북유럽을 연결하는 교통망이 정비될 경우 무역 중심지로의 부상이 기대된다. 생태관광, 요식업 등의 여가산업 발전이 유망하며, 특히 인접한 이란은 7,000만 인구의 국가로, 이 지역의 거대한 시장으로써 관광산업의 발전 잠재력이 크다.

7) Nakhchivan(나이체반)

옛 실크로드가 통과했던 지역으로 Nakhchivan 자치지역은 아제르바이잔 본토와 떨어져 있으며 터키, 이란, 아르메니아에 둘러싸인 자치공화국이다. 건조한 대륙성 기후로 국토의 32%는 해발 600~1,000m 고도에 위치하고 48%는 해발 2,000m가 넘는 곳에 자리잡고 있다.

몰리브덴과 암염, 백운암, 대리석 등의 다양한 건설자재가 매장되어 있으며 200개 이상의 온천이 흩어져 있다. 농산품의 가공 및 제조가 주요 산업이며 양 목축도 유명하다. 주변에 있는 여행지 와 화산지대로 인하여 많은 관광객을 유치하고 있다.

이란과 터키와는 도로 및 Nakhchivan 공항을 통해 물류교환이 이루어진다.

8) Sheki-Zagatala(셰키-자카탈라)

코카서스 산맥 남부, 아제르바이잔의 북부에 있는 지역이다. 아제르바이잔에서 가장 아름다운 곳 중 하나로 뽑히며 러시아 및 그루지아와 접경하고 있다.

주요 자원은 구리, 황화철강, 납, 아연이며 이 지역의 주요 산업은 농업과 목축으로 담배, 누에고치, 과일, 곡물류 등을 재배하고 있다.

9) Yukhari Garabag 및 Kelbajar-Lachin (Nagorno-Karabakh 공화국)

Lachin, Kelbajar, Gubadli, Khojavend, Khojali, Shusha, Jebrayil과 Khankendi 구역은 아르메니아 군의 완전지배를 받고 있으며 Agdam과 Fuzuli 구역은 부분적 지배를 받고 있다. 두 지역의 주요 산업 모두 농업으로 포도, 곡물, 과일, 담배 재배를 하고 있다. 금광이 많이 있으며 수은, 대리석, 석재, 코펠, 펄라이트 등이 매장되어 있다.

7. 노동관리

가. 노동시장 개황

아제르바이잔 비즈니스의 주요 강점 중의 하나는 우수한 노동인력이다. 2010년 노동인구는 대략 430만 명으로 전문교육 또는 상위교육을 받은 노동인구는 약 120만 명이다. 공식적인 실업인구는 2010년 기준으로 약 6%인 265,000명으로 추정되며, 2010년 기준 1인당 월 평균 소득은 전년 대비 9.1% 증가한 325마나트(약 410달러)이다.

노동인력 현황(2005~2009)

연도	2005	2006	2007	2008	2009
근로자수(천명)	4,168	4,264	4,295	4,318	4,332
실업자수(천명)	318	291	281	262	260

자료: 아제르바이잔 통계청(2011년 3월 기준 최신자료)

나. 노동제도

노동관계는 노동법(The Labor Code, 1999년)과 하급법이 규율하고 있다. 개인은 직업 선택의 자유가 보장되며, 외국법인은 중개기관을 통하지 않고 직접 고용할 수 있다.

고용계약은 노동관계법 보다 노동조건을 불리하게 정할 수 없다. 수습기간은 3개월을 초과할 수 없으며, 이 기간에 일방이 3일 전 통보로 고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노동기록부는 피고용자가 고용주에게 제출하고, 고용주는 피고용자의 노동기록을 기입해야 하나 강제이주자, 난민, 외국인, 무국적자 등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동 기록은 피고용자의 국가연금 지급기준이 된다.

다. 현지 직원 채용

월 최저임금은 85마나트이다.

정규노동시간은 주 40시간(특정 노동집단은 그 이하)이다. 국방, 공공안전, 공공시설 공급, 기타 긴급 상황이 아닌 경우 초과근무를 강제할 수 없으며, 노동법이 정한 기준 이상으로 초과근무를 지속할 수 없다. 초과근무수당은 초과근무, 휴무일(토요일, 일요일, 법정공휴일 등) 근무 등은 법에 따라 통상임금률의 2배 이상을 지급해야 한다.

법정휴무일은 18일(17일은 법정공휴일, 1일은 법정애도일)이며, 유급휴가일수는 최소 21일이다. (특정노동집단은 그 이상) 병가는 최초 14일 이외일 경우, 고용주가 아닌 국가사회보장기금이 보상한다. 출산휴가는 출산 전 70일, 출산 후 56일이며, 고용주가 아닌 국가사회보장기금이 보상한다.

라. 퇴직제도

고용관계는 고용계약으로 성립되며, 종료기간을 정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계절적 특성을 갖는 노동, 한시적 프로젝트, 당사자간 합의 등의 사유로 예외적으로 고용계약기간을 한정할 수 있다. 기간이 정해진 고용계약의 경우, 계약만료 7일 전까지 계약종료통보가 없는 경우 자동으로 연장된 것으로 간주한다.

기한이 정해지지 않은 고용계약의 경우, 고용주는 법으로 정해진 경우에만 고용계약을 종료할 수 있다. (법정사유: 근로자의 총체적 노동의무 위반, 잉여인력 발생, 근로자의 자질이 임무수행에 부적격인 경우, 노동조건의 변화 등)

고용인은 고용계약 종료를 사전에 통지할(통상만료 전 2개월) 의무가 있으나, 근로자의 총체적 노동의무 위반의 경우는 제외한다.

근로자는 1개월 전에 통지하여 고용계약을 종료할 수 있으며, 고용인이 고용계약을 종료시키는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일정한 기간의 '일과 중 구직활동'을 허용한다. 특정 근로자(임산부, 3세 미만 아동 부양여성)와의 고용계약 종료는 허용되지 않는다.

잉여인력 발생, 작업장 폐쇄, 기업청산 등의 사유로 고용계약을 종료하는 경우, 고용인은 최대 3개월 분의 임금을 해고수당으로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한다.

마. 법정 사회보험

일반적으로 법인은 매월 근로자 급여의 22%를 법정사회보험으로 납부해야 하며, 근로자 급여 총액의 3%를 사회보험으로 원천 징수함과 아울러 근로자를 대신해 동일금액을 추가로 국가에 납부해야 한다. 경영자가 사회보험으로 부담해야 할 금액은 상업, 운송, 건설 분야의 경우 국가 전체 평균 최소 임금의 약 70%, 기타 업종은 약 40%이다.

8. 조세제도

가. 조세제도 구분

조세제도는 일반조세제도(Statutory Tax Regime)와 석유관련 조세제도(Oil Consortia Tax)로 이원화되어 있다. 석유관련 조세제도는 생산물분배협정(Production Sharing Agreement: PSA)또는 유사한 협정에 따라 진출한 외국법인에 적용된다.

나. 일반조세

일반 조세는 2000년 조세법과 기타 하급법에 규정되어 있으며 생산물분배협정(PSA)이나 진출국정부협정(HGA)이 적용되지 않는 모든 사람에게 적용된다. 일반조세는 법인의 형태와 상관 없이 적용되며 아제르바이잔에서 영업활동을 하는 외국법인은 아제르바이잔에 등록해야 하고 지점이나 대표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다.

종류	세율	납세대상자	비고
법인세 (Profit Tax)	20%	모든 법인	과세기준: 발생이윤
사회보장세 (Social Contributions)	25% (이중 3%는 종업원 소득에서 원천징수)	고용주	과세기준: 종업원소득
부가세(VAT)	18%	부가세 납부 등록 (대상)자	과세기준: 제품 또는 서비스 가격
소비세 (Excise Tax)	0.08%~12.5%	술, 담배, 휘발유 제조자 또는 수입자, 자동차 수입업자	자동차의 경우, 엔진 용량에 따라 차등 부과
자산세 (Property Tax)	최대 1%	자산(건물, 차량 등) 소유자	과세기준: 연평균가치
토지세 (Land Tax)	면적, 입지, 지목에 따라 차등 부과	토지 소유자 또는 토지 사용자	-
광업세 (Mining Tax)	3%~26%	광물자원 채굴자	금속: 3%, 가스: 20%, 원유: 26%
단일종합세 (Simplified System Tax)	4%(바쿠지역) 2%(기타지역)	분기 매출이 약 \$47,000 미만이고 소유 자산 가치 가 약 \$1,150 만을 넘지 않는 영세업자	과세기준: 매출액, 부가세, 법인세, 자산세, 토지세 면세

자료: Doing business in Azerbaijan 2009, Tax Code of Azerbaijan

*2011년 3월 기준 최신 자료

다. 석유관련 조세

생산물분배협정(PSA), 진출국정부협정(Host Government Agreement: HGA) 등은 아제르바이잔 내 유전개발 또는 송유관 건설에 참여하는 외국기업에 유리한 조세체제를 제공하고 있다.

PSA에서 법인세는 원천징수방식을 따라 지급 가능하다. 원천징수 세금 납부로 아제르바이잔 내 모든 납세(피고용자 및 사회보장 관련 납세는 제외) 및 보고의무가 완료되며, 원천징수 세율은 PSA에 따라 5~8% 수준이다. 또한 PSA 관련 활동에 대해서는 0%의 부가가치세가 적용된다.

외국인에게도 일반 조세제도에 비해 유리한 조세조건이 적용된다. HGA는 아제르바이잔 조세 면제, 0% 부가가치세 적용, 외국인의 조세상 우대 등 PSA보다 더 유리한 조세 조건이 적용된다.

9. 외환관리 및 자금조달

가. 외환법

- 법정통화인 Azeri Manat는 1992년도에 도입되었으나, 정부의 거시경제 방침에 따라 화폐 단위 변경조치가 단행되어 2006년 1월 1일부로 신 Azeri Manat가 도입되었다.
- 외환거래 관련 기본법은 외환법(Law on currency Regulation, 1994)이며, 중앙은행(National Bank of Azerbaijan:NBA)이 외환정책 결정권과 외환통제와 관련된 규정 제정권을 갖고 있다.
- 외환법은 해외부채 상환, 로열티, 프랜차이즈 수수료 지급 등 거주자와 비거주자 간 외환 거래에 대해 규정하고 있으며, 거주자와 비거주자를 엄격하게 구분하고 있다.
 - 거주자는 아제르바이잔에 계속적인 거주지를 갖는 개인 및 아제르바이잔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에 한함.
 - 외국 법인의 아제르바이잔 내 지점 및 대표사무소는 비거주자임.
 - 비 거주자에 대한 외환규제가 거주자에 비해 훨씬 덜 제한적임.

나. 외환거래

- 수취인이 중앙은행으로부터 외환거래 특별허가를 얻은 경우를 제외한 국내의 모든 지급은 국내통화로 결제한다.
- 외환의 매매 교환은 인가된 은행 및 금융기관에서만 가능하다.
- 거주자는 국내은행에 외환계좌를 자유롭게 개설할 수 있으며, 국외은행에 계좌를 개설하는 경우 중앙은행의 동의가 필요하다.
- 경상거래
 - 180일 이내 지급조건의 수출입계약 거래대금 송금

- 180일 이내 지급조건의 수출입거래의 금융제공을 위한 송금
- 배당금, 이자, 기타소득의 송금
- 유산, 임금, 연금, 수당 등 비상업적 송금
- 자본거래
 - 해외직접투자
 - 해외증권 매입
 - 해외 고정자산 소유권 및 권리 취득
 - 180일 이상 지급조건의 수출입거래
 - 180일 이상의 해외예금
 - 기타 비경상거래

다. 특별 송금제도

- 송금액 1만 달러 초과: 동 금액이 현금으로 아제르바이잔에 유입되었음을 입증하는 통관 증명서, 개인의 입국비자 등을 제출하는 경우에 송금이 가능하다.
- 송금액 5만 달러 초과: 외환을 취득한 해외은행으로부터 은행증명서, 현금영수증 등의 자금출처 증빙서류를 추가로 제출하는 경우에 가능하다.

라. 수입대금 선급

- 수입대금은 상품이 국내에 수입되는 시점에 지급되는 것이 일반적이나, 상품이 180일 이내에 인도된다는 조건 하에 25,000달러까지 수입대금의 선급 가능하다
- 25,000달러를 초과하는 금액을 선급할 경우 중앙은행의 허가가 필요할 때, 허가기준인 ‘건전한 거래’ 여부는 중앙은행이 일방적으로 판단한다.

마. 과실송금

- 외국인의 투자가 국민과 정부에게 해를 입히거나 자연재해, 전염병, 사고 및 국가 비상사태가 발생하지 않는 한 수용 및 징발되지 아니 한다.
- 하지만 만일 이 같은 사항이 발생할 경우 국가는 외국인투자자에게 보상의 의무가 주어지며 수용 혹은 징발 당시의 투자금이 보상되는데 외화로 지급되고 해외송금이 보장된다.
- 조세를 납부한 후 이익의 송금이 보장되고 있으며, 외국인 투자자는 정부 혹은 공공기관의 불법 행위로 입게 된 손실을 보상받을 수 있다.

V. Business 참고정보

1. 물가정보

(1 US\$ = 0.792AZM / 2011년 4월 1일 기준)

구분	항목	가격(AZM)
식품류	쌀 1kg	1.0
	계란 10개	1.1
	쇠고기 1kg	7.0
	돼지고기 1kg	7.0
	우유 1L	1.2
	식용유 1L	2.2
	생수 1L	0.5
	맥주 (EFES 355ml, 6팩)	12.0
	담배 1갑 (말보로 라이트)	3.0
	햄버거 (맥도날드 빅맥)	2.5
	김치찌개 1인분	8.0
의료비	의료보험료 (4인가족, 치과제외 Full Cover, 1년)	의료보험 제도없음
	병원진료비 (의료보험 X, 몸살감기 내과초진)	20.0
	병원진료비 (의료보험 O, 몸살감기 내과초진)	-
차량관련	중형승용차 (2000cc 신차, 오토, 에어컨포함 기본사양)	52,000
	무연휘발유 1L	0.55
	자동차 등록비	300
	자동차보험료의무(2000cc신차,운전경력10년,대인/대물커버, 1년)	1,100
교통비	공항 1시간 주차료	1.0
	지하철 기본요금 (1구간)	0.15
	시내버스 기본요금	0.2
	택시 기본요금	5.0
통신	시내전화 요금 (3분)	무료
	국제전화 요금 (4분, 독일로 걸 때)	10.0
	휴대전화 요금 (월표준 1분)	0.12
	인터넷 월사용료 (ADSL 기준)	30.0
주택	아파트 월 임차료 (150sm, semi-furnished, 시내, 중상급)	1,600
교육	외국인학교 초등 1년 수업료 (중상급)	US\$23,500
	외국인학교 중등 1년 수업료 (중상급)	US\$23,500
	외국인학교 고등 1년 수업료 (중상급)	US\$23,500
숙박	특급호텔(5성급) 1박 정상요금 (싱글)	280
	중급호텔(3성급) 1박 정상요금 (싱글)	100
임금/노무	대졸 초임 (중상급 대졸, 영어구사, 외국인회사 초임 월급여)	US\$1,000
	생산직 초임 (학력무관 월급여 초임)	250
	매니저급 급여 (인사담당 5년 경력 과장급 월급여)	US\$1,500
	주당 법정근무시간	40
	출산휴가일수	90일
	연간 국경일수	16일
	주5일 근무 여부	주5일
기타	드라이크리닝 (정장 1벌 기준)	11.0

2. 무역, 투자진출시 애로사항

아제르바이잔 정부는 지난 몇 년간 규제 제도를 개선해 왔지만 여전히 투명성 결여, 부패성 소지 논란이 일고 있다. 투명치 못한 정책, 자유경쟁을 촉진하는 효과적인 법규 부재가 외국인 투자에 큰 걸림돌이 되고 있다. 아제르바이잔에서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 많은 기업인은 관료주의적인 행정 때문에 필요한 허가나 인증을 받는 데에 많은 시간을 낭비하고 있다고 계속해서 하소연을 하고 있다.

부정부패는 특히 비에너지 분야의 외국인 투자를 저해하는 주요 원인이 되고 있다. 반부패법이 있긴 하지만 유명무실하며 각종 규제 제도, 과세, 분쟁 해결제도에 있어 부패 소지가 많다. 정부의 투명치 못한 행정, 규제 남용, 미약한 계약이행 시스템은 비즈니스하기 어려운 환경으로 만들고 있고 실제로 이 때문에 굴직한 외국인 기업들이 아제르바이잔을 떠났다.

2007년 여름 아제르바이잔 정부는 투명성 제고 및 부패와의 전쟁을 선포하는 국가 전략(2007-2011)을 채택하고 공무원들의 윤리강령을 도입하였다. 동 전략은 기존의 반부패 프로그램을 대체, 보완하는 것으로 돈세탁 방지, 회계법 개정, 정부 구매의 투명성 제고, 반부패위원회의 활동 개선, 관료주의적 불필요한 규제요소 제거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아제르바이잔 대통령은 2011. 1 월말 반 부패 정책을 강화하도록 하달하였고 2 월 14 일에 교통경찰 근무지침 개선 법령에 서명하였다. 이에 따르면, 교통법규 위반자는 현금이 아닌 은행 계좌로 벌금을 지불하여야 하며 징수된 벌금의 4 분의 1 은 교통경찰 급여로 지급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세관의 통관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Single window 통관 시스템이 구축될 전망이다. 이러한 반 부패 조치는 부패 관행을 없애려는 순수한 의도라기 보다는 중동 및 아프리카 소요사태의 전이를 의식한 정부 기득권세력의 ‘민심 달래기’로 판단된다. 국제투명성기구가 발표한 2010 년 부패지수에서 아제르바이잔은 178 개국 중 134 위에 랭크 되어 전년 대비(180 개국 중 143 위) 소폭 개선된 것으로 평가 받고 있다.

3. 진출 성공, 실패 사례

□ SK C&C

○ 프로젝트 개요

- 프로젝트 명 : 바쿠시 ITS(Intelligent Transportation System) 구축
- 프로젝트 기간 : 2008. 10 월 ~ 2011. 3 월(30 개월)
- 수주 금액 : 미화 7,650 만 달러

○ 성공요인

- 당초 아제르바이잔 정부에서 바쿠 ITS 구축 프로젝트 발주 시 발주 범위가 ‘설계’까지여서 대부분의 관련 국내업체는 사업성이 희박하다고 판단하여 입찰에 참가하지 않았으나 SK C&C 는 향후 가능성을 보고 동일한 조건에서도 사업 참가를 결정하고 응찰 함.
- SK C&C 는 현지 정부의 느린 의사결정과 미온적인 반응(심지어 삼 개월간 아무런 입장 표명을 하지 않는 등)에도 불구하고 까다로운 자료 요구에 즉각적으로 대응하고 잦은 현지 출장을 시행하는 등 끈기 있는 응수로 현지 정부에 신뢰관계를 쌓았던 점, 그리고 SK C&C 사의 경쟁사 대비 우수한 기술력이 프로젝트를 수주하는 데에 결정적인 역할을 함. 한편, SK C&C 사의 러시아어 구사직원이 통역 없이 현지 정부와 직접적으로 속깊은 대화를 나눌 수 있었던 점도 유효하게 작용함.

- 프로젝트 수행범위는 당초 계획상의 '설계'에서 '시스템 구축'까지로 확대되어 총 7,650 만불(세금 별도금액) 규모의 큰 프로젝트를 수행하게 됨.

4. 이주정착 가이드

아제르바이잔 생활환경은 90년대 후반 이후 꾸준히 좋아지고 있다. 식료품 구입에서 호텔 피트니스 시설 이용 등 대부분의 현대적인 편의생활이 가능하다. 석유 수출로 유입되는 오일 머니로 높아진 구매력 탓에 바쿠 시내 쇼핑센터에는 소위 명품숍이 줄지어 생기고 있고, 아시아, 유럽, 중동, 남미 등 전 세계 다양한 음식을 맛볼 수 있는 레스토랑이 돈 많은 고객들을 맞이하고 있다.

무선 통신망은 전국의 80%까지 보급되어 있으며 바쿠시에서는 ADSL 수준의 유무선 인터넷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자동차 도로망은 포장상태 등 아직은 미흡한 수준이나 바쿠와 주요 도시를 잇는 도로 건설이 한창 진행 중에 있어 향후 3~5년 후에는 도로망도 잘 정비 될 것으로 보인다. 하수 처리시스템은 현재 거의 전무한 상황이어서 환경오염의 피해가 상당히 클 것으로 보인다. 아제르바이잔 정부는 하수처리 시스템 구축 계획을 갖고 있으며 한국의 모기업과 동 프로젝트에 대해 협상을 진행 중에 있다. 갑작스런 단전 및 단수도 여전히 간헐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가끔씩 생활의 불편을 겪는다. 수도물은 석회석이 많아 그냥 마시면 안되며 생수를 사다 먹거나 끓여 먹어야 한다.

바쿠시는 도시의 반이 공사판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주상복합, 오피스 건설이 한창이다. 최근 몇 년 사이 부동산 가격은 폭등하여 바쿠의 아파트 및 사무실 임차비는 서유럽 어느 도시 못지않을 정도로 높다. 현재 외국인이 거주할 만한 안전하고 깨끗한 아파트는 충분히 여유가 있어 큰 어려움 없이 구할 수 있다. 사무실은 약 3년전만 해도 주택에 비해 공급이 충분치 않아 공급자 위주의 시장이었고 마땅한 사무실을 찾는 것이 쉽지 않았으나 최근에 오피스 건물이 많이 공급되어 이 문제도 대체로 해소되었다.

아제르바이잔 치안상태는 비교적 좋은 편이다. 유럽 국가 대비 범죄율은 낮은 편이며 안전하게 거리를 보행할 수 있다. 물론 어두운 밤거리를 다니는 것은 피해야 하며 많은 사람이 보는 자리에서 큰돈을 꺼내 보이는 행동은 삼가야 한다. 복장과 관련, 남자들은 더운 여름철에도 항상 긴바지를 입고 다니며 여자들은 유행에 맞춰 좀 더 편안하게(심지어 미니스커트도) 입고 다니는 것을 볼 수 있다. 젊은 세대는 영어를 많이 배우고 있으나 아제리어나 러시아어를 모르면 생활하기가 불편하다.

아제르바이잔 의료 환경은 열악한 편이다. 특히 대도시 이외 지역에서는 의료서비스가 거의 제공되지 못하고 있다. 바쿠는 그나마 현대적인 의료장비와 숙련된 의사가 있어 경미한 수술은 가능하나 복잡한 대수술은 여전히 어려운 실정이다.

대중교통은 한국에 비해 저렴하나 노선이 발달되어 있지 않아 이용이 다소 불편하다. 버스에는 에어컨 시설이 되어 있지 않아 특히 여름에 이용하기에는 매우 불편한 점이 많다.

외국인 학교는 영국계(TISA) 및 미국계(BIS) 두 곳이 있다. 이 외에도 영어로 수업을 하는 외국인 학교가 더 있으나 수준이 낮기 때문에 외국 주재원들은 대부분 TISA나 BIS를 이용한다. 아제르바이잔에는 여가생활을 위한 시설이 부족하다. 골프장은 아직까지 없으며 실내 골프연습장도 없다. 테니스장은 많이 있어서 비교적 편리하게 이용이 가능하다. 영화관은 바쿠 시내에 한 곳이 있으며, 볼링장은 시내에 서너 군데가 있다. 구소련의 영향으로 비교적 오페라, 발레 공연장은 발달되어 있으며 서커스장도 한 곳이 있다.

5. 출장가이드

가. 기후

아제르바이잔은 주로 온대성기후이나 건조아열대기후에서 산지툰드라 기후까지 다양한 기후가 나타난다. 평야는 건조한 온대기후, 남동부의 렌카란 저지는 습윤한 아열대기후, 이란 인접 지역은 온대대륙성 기후, 해발 2,000m 이상의 산지는 한랭한 기후지대이다.

연평균기온이 평야는 0~15℃로 다양하고, 고산지대는 0℃ 이하이다. 평야지대의 1 월 평균기온은 0~3℃, 중간산지는 영하 3~영하 6℃, 고산지대는 영하 10℃ 이하이다. 평야지대의 7 월 평균기온은 25~27℃이며 여름철에는 최고 43℃까지 상승한다.

강수량은 지역적 차이가 크다. 강수량이 적은 지역은 압세론 반도의 남부해안, 쉬르반 남동부, 고부스탄 남동부 등지로 연강수량이 200mm 이하이다. 쿠라 저지의 동부, 나히체반 지방의 아라크스강 유역도 200~300mm 에 불과하다. 소카프카스 산맥과 대카프카스 산맥의 북동사면은 600~800mm, 대카프카스 산맥의 남사면은 1,000~1,300mm 이나 되며, 2,000 mm 를 넘는 곳도 있다. 렌카란 평야 남부와 탈리쉬 산맥의 산록은 1,100~ 1,700mm 이다. 렌카란 지역에서는 강수의 대부분이 겨울에 집중되며, 산간지역이나 구릉지에서는 4~9 월 사이에 집중된다.

나. 시차/근무시간

아제르바이잔 시간은 'GMT+4 시간' 이며 한국과는 하절기(서머타임 실시)에 4 시간, 동절기엔 5 시간의 시차가 있다.

근무시간은 일반적으로 주 40 시간이며 토, 일요일을 제외한 주 5 일 근무를 원칙으로 한다. (상점이나 슈퍼마켓 등은 제외) 국방 또는 국민의 안전을 위해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초과 근무를 강요할 수 없으며, 초과근무시간 또한 노동법에 규정된 시간을 넘어서는 안 된다. 시간 외 근무 시 초과수당은 정규 근무시간 임금의 최소 2 배를 지급해야 한다. 2011 년 현재 근로자 최저임금은 월 85 마나트(약 미화\$107)이다.

다. 출입국/비자

- 아제르바이잔으로 가는 외국인은 비자를 받아야 한다. 비자는 아제르바이잔 대사관이나 영사관에서 받을 수 있다.
 - 비자 신청서 사본
 - 여권용 사진 또는 여권 사본
- 단수비자의 유효기간은 3일에서 3개월이다. 복수비자는 아제르바이잔 출·입국 횟수에 상관 없이 최대 일년까지 유효하며 비자 유효기간 동안 비자를 사용하지 않으면 무효로 된다.
- 아제르바이잔을 경유하여 다른 국가로 가는 외국인들도 단수 혹은 복수 경유 비자를 받을 수 있다. 이 비자를 지참한 외국인은 아제르바이잔에서 5일 이내로 머물 수 있다.
- 아제르바이잔에서 비자기간을 늘리기 위해서는 비자만료일 전에 다음의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 비자신청서 사본
 - 여권 원본 또는 재입국 허가증

- 수수료 영수증
- 초청장

- 아제르바이잔에서 한달 이상 체류하는 외국인은 거주지 등록을 해야 한다.
- 비자 비용은 아래 표에 명시되어 있다.

비자 비용

(단위: 달러)

비자 종류	비자 비용
단수 비자 (3일~3개월 이내)	50
더블 비자	80
복수 비자 (1년 이내)	250
학생 비자	20
경유 비자	20
더블 경유 비자	40
비자 연장 (24시간 이내)	10
비자 연장 (48시간 이내)	20
비자 연장 (72시간 이내)	30
비자 연장 (3일~1달 이내)	40

- 비즈니스 목적으로 아제르바이잔으로 오는 외국인은 노동 허가증을 받아야 한다. 이 허가증은 노동부와 사회보호부(Social Protection)에서 발행한다. 노동 허가서는 1년 동안 유효하다. 이 허가증의 유효기간을 연간 연장할 수 있지만, 연속 4회 이상 연장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다음의 경우에는 노동 허가증을 받지 않아도 된다.
 - 영주권자, 기업가, 국제협약을 통해 세워진 기업 경영자, 외교 사절 단, 국제기관 직원, 재외 공관 직원, 사업가(3개월 이내 거주하는), 집행 당국 직원, 정부에 등록된 선교사들, 대중 매체 직원, 선원, 스포츠맨, 예술가, 대학 연구자와 교수들
- 노동부와 사회보호부(MLSP)에서 노동 허가증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 신청서(MLSP에서 발행한)
 - 허가증 사본
 - 추천서 사본

라. 교통/통신

1) 교통

□ 육상교통

바쿠시의 교통수단은 지하철, 미니버스, 택시 세 가지가 있다. 지하철 요금은 15 케픽(= 0.15 마나트) 으로 비교적 저렴하며 2 개의 노선이 있다. 2 마나트 짜리 카드 구매 후 계속 충전해서 사용할 수 있다. 미니버스 요금은 20 케픽이며 현금을 내고 이용한다. 지하철과 미니버스 운행 시간은 대략 06:00AM~12:00PM 이다. 택시는 한국에서처럼 미터기를 장착하고 있지 않아 매 번 이용할 때마다 흥정해야 한다. 바쿠 시내에서 시내로 이동 시 택시운전기사는 보통 5 마나트 지불을 요구한다.

공항에서 택시를 이용하여 바쿠 시내로 들어올 경우, 보통 미화 30 달러 정도를 요구한다. 아제르바이잔의 철로는 두 개의 주요 노선이 있는데 그 중 한 노선은 카스피해를 따라 러시아에서 이란으로 나 있으며, 다른 노선은 바쿠에서 그루지야 국경까지 M27 노선과 평행하게 깔려 있다. 철도를 이용하여 바쿠에서 그루지야까지 갈 경우, 약 14~17 시간이 소요되며 비용은 객차 등급에 따라 35~50 마나트가 소요된다.

□ 해상교통

카스피해는 육지로 둘러싸인 내해여서 바쿠는 국제 항구로 발전하지 못했지만 1990 년 중반 이후 연간 20%의 비율로 성장해 오고 있다. 바쿠에서 카스피해를 통해 투르크메니스탄의 투르크멘바시와 이란의 반다르안잘리, 반다르 나우샤 등으로 갈 수 있다.

□ 항공교통

항공운송은 1931 년부터 시작되었으며, 바쿠, 간자, 나히체반 세 곳에 국제공항이 위치하고 있다. 바쿠에서 러시아, 우크라이나, 그루지야, 카작흐스탄, 우즈베키스탄 등 CIS 국가와 터키, 이란 등 주변 인접국가의 주요 도시로 가는 항공편이 개설되어 있으며 국내 주요 항공로는 바쿠~나히체반 항로이다.

2) 통신

□ 유무선 통신

아제르바이잔의 일반 전화 보급률은 매우 낮다. 2008 년 말 기준 약 139 만 명(보급률 16%) 정도만 유선 전화를 보유하고 있으며 시골 변두리에는 공공전화 서비스가 미치지 못하고 있다. 바쿠 시내에 서도 공중전화는 찾아 볼 수 없다. 반면, 무선통신의 경우, 1994 년 아날로그식 이동통신 서비스가 처음으로 도입된 이후 현재 GSM 방식이 보편적으로 자리잡았으며 아제르셀(Azercel), 박셀(Bakcell), 아제르폰(이상 GSM), 카텔(CDMA) 4 개의 이동통신 회사가 경쟁하고 있다. 서비스 가입자 수는 2010 년 기준 약 850 만 명(보급률 94%)에 근접하고 있으며 서비스 지역은 전국의 약 80%에 이른다. 바쿠 시내 도처에 서비스망이 있어서 회원가입 및 서비스 이용이 용이하다.

□ 인터넷

2010 년 현재 아제르바이잔 인터넷 이용자수는 약 369 만 명 정도로 추정되며, 일반 가정에서만 아니라 인터넷 카페에서도 인터넷을 이용할 수 있다. 일반 가정에서는 주로 전화접속 시스템을 사용하고 있으나 ADSL 수준의 고속 인터넷 이용도 가능하다. 고속 인터넷 요금은 1GB 에 약 미화 30 달러 정도로 비싼 편이라 일부만 사용하고 있다.

마. 공휴일

아제르바이잔 노동법에 의하면 공식 휴무일은 18 일이며, 그 중 17 일은 국경일, 1 일은 추모 일이다. 만약 공휴일이 주말과 겹치게 되면 바로 다음 근무 일이 자동적으로 휴무일이 된다. 선거일 또한 휴무하며, 만일 공휴일에 일을 하게 되면 더 높은 보수를 지급해야 한다. 노동법에 규정된 유급휴가일수는 최소 연 21 일이다.

공휴일

1. 1~2	신년
1. 20	추모일
3. 8	여성의 날
매년 바뀜(3 월)	Novruz Bayram(고대종교신년)
5. 9	승전기념일
5. 28	공화국의 날
6. 15	국가 구원의 날
6. 26	국군의 날
10. 18	독립기념일
매년 바뀜(10 월)	Ramazan Bayram(금식제)
11. 12	제헌절
11. 17	국가재건일
12. 31	아제르바이잔 연대의 날
매년 바뀜(12 월)	Gurban Bayram(희생제)

바. 유용한 연락처**정부부처**

기관명	주 소	전화(994-12)
경제개발부	23 Niyazi St., Baku, AZ1066	492-41-10
문화관광부	40, U.Hajibayov St., Baku AZ1016	493-43-98
내무부	7, Husu Hajiyeve St., Baku, AZ1005	490-92-22
외무부	4, Sh.Gurbanov St., Baku, AZ1009	492-96-92
국세부	16, Landau St., Baku, AZ1073	403-86-32
재무부	83, Samed Vurgun St., Baku, AZ1022	493-81-03
국가안보부	2, Parliament Avenue, Baku, AZ1006	493-76-22
교통부	Block 1054, Tbilisi Ave., Baku, AZ1000	431-46-36
농림부	40, U.Hajibayov St., Baku AZ1016	493-28-92
국방부	3, Parliament Ave., Baku, AZ1073	439-41-89
비상사태부	57, Tbilisi Ave., Baku	512-00-61
환경자원부	100A, Bahram Agayev St., Baku, AZ1033	438-15-21
정보통신부	33, Azerbaijan Ave., Baku, AZ1000	493-00-04
산업에너지부	88, Zardabi St., Baku, AZ1112	447-05-88
법무부	1, Inshaatchylar Avenue, Baku, AZ1073	430-09-77
교육부	49, Khatai Avenue, Baku, AZ1008	496-35-15
노동부	85, Salatin Asgerova St., Baku, AZ1009	596-50-34
관세청	2, Inshaatchylar Ave., Baku, AZ1073	438-80-80
통계청	Inshaatchilar Ave, Baku, AZ1136	438-6498
중앙은행	19 Bul-Bul Av.	493-11-22
석유공사(SOCAR)	73, Neftchiler Av.	492-17-89
석유재단(SOFAZ)	20, Bul-Bul Ave., Baku, AZ1014	498-77-53
상공회의소	73 Fatali Khan Khoisky St.	495-68-36
수출투자진흥공사(AZPROMO)	11, Hasan Abdullayev street Baku, AZ 1001	598-01-47

기타 유용한 연락처

구 분	기관명	번호(994-12)
대한민국 공공기관	주 아제르바이잔 한국대사관	596-7901~03
	KOTRA 바쿠 KBC	436-7560~61
공증사무소	Notary's Office #1	493-4514
통번역 서비스	Vnesh Expert Service Consulting Company	492-9277, www.vneshexpertservice.com
주요 호텔	Park Hyatt Baku	490-1234, www.baku.hyatt.com
	Grand Hotel Europe Baku	490-7090, www.europehotel-baku.com
	Radisson SAS	498-2402
	Park Inn Azerbaijan	490-6000, www.baku.rezidorpark inn.com
자동차 렌트	AVIS	497-5455
	HERTZ	497-8757
긴급전화	소방서	-101: 4910734
	경찰서	-012: 4934265: 4958817
	응급차	-103